

# 문화관광경험분석 - 전문화(Specialization)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Culture Tourism Experience  
- Focused on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

송화성 Song, Hwasung

## 송화성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관광학 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현)  
hssong@suwon.re.kr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 | 연혁 |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 수원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2013년 3월 28일 설립

### | 설립목적 |

연구원은 수원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관광경험분석

—전문화(Specialization)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Culture Tourism Experience  
— Focused on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2014

---

## 연구진

연구책임

● 송화성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윤자연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원

● 임태훈 / 인문사회연구부 연구보조원

연구자문

● Kerstetter, D. /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

● 박석희 / 경기대학교 교수

● 엄서호 / 경기대학교 교수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구 요약

현재 문화관광분야는 관광객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가와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베이비 붐 세대들의 정년퇴직, 주5일제 등 같은 사회적 조건과 더불어 여유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관광객은 그 수와 질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인터넷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관광객들은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등 관광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객들은 문화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탐구 욕구가 높아, 이러한 욕구를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객은 점차 지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하게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에서 보던 문화유산을 직접 문화유산지에 찾아가서 실물로 보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문화관광객은 그 수와 질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관광객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관광지에서 문화관광객의 지식탐구욕을 해소할만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지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체험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문화관광객을 위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객의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대상별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관광 공급자로서 수원시가 문화관광객의 높아진 욕구와 기대수준에 맞춰 최대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이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화 측정을 통한 문화관광객의 수준별 이해를 통한 질 높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문화의 개념, 측정변수, 분석방법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수원화성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정도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및 수원화성 문화관광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화성 문화관광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내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화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문화관광객의 특성이 전문화 구성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함으로써, 해외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집중 연구되었던 전문화 개념이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외 문화관광객에 대한 전문화 선행연구와는 구별되는 문화관광객만의 특징적인 전문화 구성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신체적·사회적 기술의 축적’, ‘차별화·고급화의 욕구’, ‘비용·시간·노력의 투자’와 같이 기존 야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개념 및 해외 문화관광객 전문화 선행연구와는 구별되는 국내 문화관광객만의 특징적인 전문화 개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전문화 특성으로 ‘사회적 기술의 축적’ 즉, 인맥(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발견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전문화의 새로운 개념 및 발전과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먼저 기존 전문화의 행동적 접근의 양적인 측정(횟수 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간·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구성개념의 표현이 가능하였고, ‘차별화·고급화 욕구’ 개념의 도출을 통해 전문화의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 전문화 과정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전문화 구성개념 간 발전 과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양적 연구가 가진 결과치의 평균화 특성을 보완하여 전문화 개념의 확인을 위한 ‘마니아’ 집단의 결과 표현이 가능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분석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전문화 구성개념에 대한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점 보완할 수 있었고, 수원 문화관광객의 차별화 및 고급화 추세에 맞는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목 차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	7
2. 연구의 방법 .....	10
<b>제2장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b> .....	<b>13</b>
제1절 전문화(Specialization)의 이해 .....	13
1. 전문화의 개념 .....	13
2. 국내의 전문화 연구동향 .....	15
3. 전문화측정 관련 연구동향 .....	16
제2절 문화관광객의 이해 .....	19
1. 문화관광객의 특성 .....	19
2.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	21
<b>제3장 조사 설계 및 연구 방법</b> .....	<b>25</b>
제1절 조사 설계 .....	25
1. 조사 방법 .....	25
2. 인터뷰 참여자 선정 .....	27
제2절 연구 방법 .....	29
1. 자료 수집 .....	29
2. 분석 방법 .....	31

<b>제4장 분석 결과</b> .....	<b>37</b>
제1절 참여자 특성 .....	37
1. 일반적 특성 .....	37
2. 외형적 특성 .....	42
3. 행태적 특성 .....	42
제2절 조사결과 .....	48
1. 개방코딩 .....	48
2. 축코딩 .....	63
3. 선택코딩 .....	76
<b>제5장 연구결과 요약</b> .....	<b>79</b>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	79
1. 전문화 개념의 적용 가능성 확인 .....	79
2. 국내 문화관광객의 특징적 전문화 개념 도출 .....	79
3.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점 보완 .....	80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82
1. 연구의 의의 .....	82
2. 연구의 한계점 .....	84
제3절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86
1. 전문화된 문화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필요 ..	86
2. 국내 문화관광객의 전문화에 대한 연구 필요 .....	88
<b>참고문헌</b> .....	<b>93</b>
<b>영문요약(Abstract)</b> .....	<b>101</b>

# 표 목 차

<표 3-1> 인터뷰 참여자 프로필 .....	28
<표 4-1> 문화관광객 전문화 개념의 범주화 .....	48
<표 4-2> 축코딩 결과 : 인과적 조건 .....	64
<표 4-3> 축코딩 결과 : 중심현상 .....	66
<표 4-4> 축코딩 결과 : 맥락적 조건 .....	67
<표 4-5> 축코딩 결과 : 중재적 조건 .....	70
<표 4-6> 축코딩 결과 : 작용·상호작용 .....	72
<표 4-7> 축코딩 결과 : 결과 .....	73

# 그림 목 차

<그림 1-1> 수원 화성학교 제2강 코스 .....	8
<그림 1-2> 화성학교 답사 모습 .....	9
<그림 3-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성요소 .....	26
<그림 3-2> 근거이론 코딩과정의 예시 .....	32
<그림 4-1> 수원화성 답사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	42
<그림 4-2>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 전문화 과정 .....	75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1)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추세

현재 문화관광분야는 관광객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가와 문화소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들의 정년퇴직, 주5일제 등 같은 사회적 조건과 더불어 여유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관광객은 그 수와 질이 상승하고 있다.

2011년 유흥준의 「나의문화유산답사기」가 출판되면서 시작된 문화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2010~2011년은 여가를 즐기지 않던 시니어 세대들의 은퇴 이후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sup>1)</sup>. 그리고 최근 '1박2일' 등 TV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였고 이제 남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프레스리안, 한겨레 등 언론사에서 인문학습원을 운영하면서 경주남산학교, 서울학교, 몽골학교 등 지역과 지역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답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관광객들은 문화관광을 관심사나 취미 이상의 것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시간, 금전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문화관광을 삶의 일부이자 전부로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문화관광객으로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일반 관광객보다 문화관광에 전문화된 문화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

1) 김혜인(2013), 문화예술 트렌드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 문화관광객의 수준별 이해 필요 증가

인터넷과 인터넷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관광객들은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등 관광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객들은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탐구 욕구가 높아, 이러한 욕구를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객은 점차 지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하게 지역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책에서 보던 문화유산을 직접 문화유산지에 찾아가서 실물로 보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문화관광객은 그 수와 질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날로 높아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관광객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화관광지에서 문화관광객의 지식탐구욕을 해소할만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지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체험 위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문화관광객을 위한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객의 수준별 이해가 부족한 탓에 대상별 욕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공급자로서 수원시가 문화관광객의 높아진 욕구와 기대수준에 맞춰 최대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이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화정도의 측정을 통한 문화관광객의 수준별 이해를 통한 질 높은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 3) 문화관광시장의 확대 방안 마련 연구 필요

문화관광객에 대한 수준별 이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서 이를 위한 유용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특정 분야의 활동에 대한 수준 높은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전문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전문화 연구는 증가하는 수준 높은 관광객에 대

한 이해를 돕는 방안으로서 주로 다양한 분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적용되어 왔다.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화 연구는 최근 들어 이루어졌으나 증가하는 수준 높은 문화관광객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유용한 접근법으로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 1)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 분석

본 연구는 전문화된 관광활동으로서 문화관광에 몰입한 사람들이 수원 화성을 방문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분석을 통해 문화관광객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가능성 확인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을 관광활동의 전문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화(Specialization) 구성개념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수원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정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해외의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Outdoor Recreation)에만 적용·연구되어왔던 전문화의 개념을 국내의 문화관광 활동에 적용해봄으로써, 국내 관광활동의 전문화 적용 가능성 및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화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고자 한다.

### 3) 문화관광객 특성 분석

본 연구는 수원화성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분석을 통해 수원 문화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방문객의 만족을 높이고 재방문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등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원 문화관광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내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화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수원 화성 및 그 일대이다.

####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5개월간)이다.

#### 3) 내용적 범위

##### 가. 문화관광객 범위 설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전문화된 문화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체일반관광객 중에서도 문화관광에 전문화된 관광객을 지칭하는 협의의 문화관광객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도, 과거경험 등의 차이가 있어 전문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객 중 수원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수원화성 일대를 답사·방문한 관광객 중에서 수원화성 및 그 일대 관련 학습프로그램인 ‘화성학교’에 참여한 사람과 기존 수원화성 문화관광 답사에 참여한 문화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다.

##### 나. ‘화성학교’

수원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인 수원화성과 관련된 문화관광지를 방문하는 답사프로그램인 ‘화성학교’는 온라인 언론사 ‘프레이션’이 운

영하는 인문학습원에서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으로, 2014년 올해 분기마다 진행함을 목표로 현재 제2강 강의까지 진행되었다.

화성학교 제2강은 ‘아름다운 화성(華城) 속속들이 감상’을 주제로 5월 31일(토요일) 하루 동안 김준혁(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화성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참가비는 1인당 6만원이다.

일정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답사 참가자들은 다음 그림<1-1>과 같은 일정에 따라 화성행궁, 화령전 답사, 무예24기 시연 관람, 화성유수부 이아(貳衙), 무고(武庫), 강무당(講武堂)터, 정조의 축성 지휘터 답사, 화성 내 문화공간 답사(<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촬영 한옥, 민속촌 99칸 한옥터), 화성 답사(팔달문, 화양루, 서장대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으나, 날씨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자료 : 프레시안 인문학습원(<http://www.huschool.com>)  
 <그림 1-1> 수원 화성학교 제2강 코스



자료 : 화성학교 카페(<http://cafe.naver.com/hwaseongschool>)  
 <그림 1-2> 화성학교 답사 모습

## 2. 연구 방법

### 1) 이론 검토를 위한 문헌조사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조사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관광객 설정을 위한 개념 및 분류에 대한 문헌조사와,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을 위해 전문화 개념 및 측정변수, 분석방법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문화관광객 현장조사

문화관광객 전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화성답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화성답사프로그램 참가자 중 개별인터뷰에 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 참여 동기 등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을 파악하고 문화관광객 전문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 3) 문화관광객 심층인터뷰 조사 및 분석

문화관광객의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정도와 이에 따른 경험형태, 동기, 추구편익과 만족도 등의 분석을 통해 한국형 문화 전문화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수원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 제안 등 도출된 결과를 통해 수원화성 문화관광객에 대한 전문화 적용가능성 평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제2장

##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제1절 전문화의 이해

제2절 문화관광객의 이해



# 제2장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 제1절 전문화(Specialization)의 이해

### 1. 전문화의 개념

#### 1) 전문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는 미국의 여가사회 학자인 Bryan(1977:175; Needham, Vaske, Donnelly, & Manfred, 2007:416에서 재인용)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스포츠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 활동 장소에 대한 선호에 의해 규정되는 일반적 상태에서 특별한 상태로 이어지는 행동의 연속”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가 활동 참여자들은 기술과 몰입이 증가할수록 전문화의 연속선상에서 높은 단계로 진보해나간다(Bryan, 1977; Scott & Shafer, 2001; Needham *et al.*, 2007).

Scott & Shafer(2001:321)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발전적 과정으로서, 여가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여 수준이 증가할수록 진보한다는 개념에서 보아야 하며, 몰입(Commitment)과 관여(Involvement)로 구성된 요소로서 여가 활동 참여자들의 선호, 동기, 태도 등과 관련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란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행동단계의 연속체로서, 단계마다 다양한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문화관광 전문화란 문화관광객이 문화관광 활동의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행동의 연속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인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전문화의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전문화 정도가 높아지면 그 과정에서의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참여 동기·기술·태도·기대하는 경험형태·추구 편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대상지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다.

때문에 관광공급자의 입장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을 분석하여 전문화 과정을 이해하고 관광객의 전문화 수준을 세분화한다면 관광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관광전략 제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2) 전문화의 단계

Bryan(1977; Scott & Shafer, 2001: 320에서 재인용)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개인이 레저 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수록 더 높은 몰입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개발과정으로 봄으로써, 전문화 수준에 따라 여가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레크리에이션 활동 초보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에 대한 지식이 적으나 전문화 정도에 이르면 상당한 기본지식을 갖추게 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가활동을 경험하더라도 참여자는 다양한 태도, 행동을 나타내며 여러 집단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Bryan(1977; 송영민b, 2010:239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전문화 과정은 가끔 참여하는 초보자 단계, 능력을 입증하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발전 단계, 높은 수준의 몰입과 지식과 관련된 활동을 갖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 또한 Stebbins(1992; 송영민b, 2010:239-240에서 재인용)는 이보다 두 단계가 많은 시작, 발전, 확립, 지속, 쇠퇴의 5단계로 전문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지속 단계에서 경력이 풍부해지고, 참가자는 최고의 순간을 추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상처 또는 나이 들어감, 창조적 능력의 감퇴, 또는 가능한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쇠퇴한다고 주장하였다.

## 2. 국내외 전문화 연구동향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등산, 낚시, 캠핑, 사냥, 탐조, 보트타기, 요트타기, 카드놀이 등 다양한 종류의 여가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었다(서용석·김용근, 2007; 송영민, 2010a; 2010b; 이영란·김형곤·오치옥, 2013; 이진형, 2005; Wellman, Roggenbuck, & Smith, 1982; Donnelly, Vaske, & Graefe, 1986; Hammit & McDonald, 1983).

Hobson Bryan(1977)의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의 여가학자들은 개인의 특정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행위나 태도는 그 사람이 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전문화 되어 있는 정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전문화를 중요하게 연구해왔다.

국내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라,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을 연구하는 관광학, 여가학, 체육학 관련 학회지에서도 2000년대 말부터 여가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개념 및 이를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행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길기연·최일선·김가윤, 2014; 김현정·김남조, 2012; 서광봉·이철원·조남홍, 2012; 송강영, 2012; 송영민, 2010a; 2010b; 이문진·황선환, 2012; 이영란·김형곤·오치옥, 2013; 이진형, 2005; 전홍조·김형훈·이철원, 2013; 정명희·김남조, 2006; 황선환·김중호, 2013). 이들은 스키, 탐조, 캠핑, 자전거여행, 낚시, 댄스 등 주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전문화를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전문화 연구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 전문화 연구는 Kerstetter, Confer & Graefe(2001)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유산관광객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방문행동, 동기, 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도식화하였다.

### 3. 전문화측정 관련 연구동향

초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과거의 경험이나 투자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으로 보고, 행동적 개념의 단일차원을 토대로 개념화하였다(Williams, 1980; 이문진·이연주, 2010:406에서 재인용). 따라서 초기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는 과거의 경험이나 투자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행동 분석 관점에서 단일차원의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단일차원 연구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참가빈도, 과거경험정도, 금전적인 투자, 사용하는 장비유형, 보유한 장비의 수 등의 행동적 단일차원 척도로 측정하였다(Bryan, 1977; Ditton, Loomis, & Choi, 1992; 이문진·이연주, 2010:404에서 재인용).

몇몇 연구에서는 생활의 중심성(Centrality), 여가활동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수준, 개인의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중요도,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수준 등의 태도(Attitude)의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McIntyre & Pigram(1992; 이문진·이연주, 2010:404에서 재인용)은 제품의 관여도 개념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관여(Enduring Involvement)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측정했다.

하지만 심리적 몰입과 생활방식 부문은 과거 경험과 동일선상에서 함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경험이 풍부해도 어느 정도 전문화 수준에 이르면 심리적·행동적 몰입과 관여(Commitment and Lifestyle Involvement)가 경험 수준의 증가와 공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Kuentzel & McDonald, 1992:282). 즉, 행동, 기술, 몰입은 “보조를 맞춰(Lock Step)” 함께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cott & Shafer, 2001:338).

따라서 전문화의 측정은 행동적 측면과 함께 심리적, 인지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행동과 정서, 인지의 세 가지 차원의 다차원 척도를 이용한 측정이 제기되었다(Bricker & Kerstetter, 2000; McFarlane, 1994; 2004; Scott & Shafer, 2001). Bricker & Kerstetter(2000)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경험의 수준, 기술수준

및 능력, 생활의 중심성, 지속적인 관여, 장비 및 투자라는 5개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측정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관여를 향유(Enjoyment), 중요도, 자기 표현(Self-Expression), 중심성(Centrality)의 4개 개념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게 측정하였다.

전문화의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McFarlane(1994)는 탐조객의 전문화를 과거 경험, 생활의 중심성, 경제적 몰입(투자)으로 측정하였으며, McFarlane(2004)에서는 캠핑객들에 대해 인지적 요소의 하위개념으로서 불피우기 기술(Bush Skill), 정서적 요소의 하위개념으로서 매력, 중심성, 중요도, 행동적 요소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반적 캠핑 경험 횟수, 장소에의 친숙성 등을 포함한 다차원 척도로 측정하였다. Scott & Shafer(2001)는 행위의 집중, 기술과 지식, 몰입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의 이론적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문화가 행동, 인지, 정서적 요인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McFarlane, 2004; Scott & Shafer, 2001; Needham *et al.*, 2007).

## 1) 행동적 접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서의 행동적 접근은 경험시간, 참가횟수, 장소, 방문 횟수, 사용되는 장비의 유형, 구입한 장비의 수, 구입한 잡지와 책의 권 수, 투자 금액 정도 등 과거 경험, 장비, 장소와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여 세 가지 전문화 구성요소 중 가장 객관적인 양적 측정을 포함한다(Bricker & Kerstetter, 2000; Kuentzel & McDonald, 1992; Lee & Scott, 2004; McFarlane, 1994; 2004; Miller & Graefe, 2000).

특히 이러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양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전문화의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매우 유용한 기준으로, 개인이 자연스럽게 그들

의 여가 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특정 여가활동에 친근감을 갖는다(송영민, 2010b:240).

## 2) 인지적 접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인지적 접근은 기술과 지식 등 전문화 과정에서 습득된 지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지식의 수준은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지식을 테스트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인지적 접근에 관한 연구로서 Lee & Scott(2004)은 지식과 기술이라는 인지적 요소가 행동이나 정서적 요소보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접근은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전문화가 이뤄진다고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3) 정서적 접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대한 정서적 접근은 몰입, 삶의 중심성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도와 삶의 중심성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영역의 특징으로, 전문화 단계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즉, 초보자나 불규칙하게 참가하는 사람들은 여가활동을 삶의 중심적 관심사로 생각하지 않거나 장비나 기술에 대해 강한 선호를 갖고 있지 않는 반면, 열심인 참여자들은 활동에 더 몰입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한다(Needham *et al.*, 2007:416). 또한 고도로 전문화된 사람은 활동에 대한 목적을 떠나 장소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형성한다(Bricker & Kerstetter, 2000:254).

## 제2절 문화관광객의 이해

### 1. 문화관광객의 특성

문화관광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역사적 사건장소, 역사적 건축물을 방문하는 것부터 공연예술, 축제 및 문화행사 참여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대의 관광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 활동의 일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있고(서태양, 1999) 관광을 통해 접하는 것들 중 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요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은 소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문화관광객이라 볼 수 있다(오정학·윤유식, 2010b:168). 따라서 문화와 관광의 광범위적 특성에 의해 문화관광객 또한 관광객이 체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도 문화관광의 개념은 역사유물, 유적관광을 중심으로 한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Prentice, 1993; 오정학·윤유식, 2010a:83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Poria, Butler & Airey(2003: 248)은 유산관광객을 방문대상지 속성에 대한 사전 인지, 방문동기, 개인의 지각수준을 기준으로 유산관광객의 속성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 ① 관광지의 유산적 속성을 모르는 관광객
- ② 관광지의 유산적 속성을 알지만, 다른 동기에 의해 방문한 관광객
- ③ 관광지의 유산적 속성에 의해 방문하지만, 그것이 관광지 소유의 유산이 아니라 여기는 관광객
- ④ 관광지의 유산적 속성에 의해 방문하였고, 그것이 관광지 소유의 유산이라 여기는 관광객

이를 통해 Poria *et al.*(2003)은 진정한 유산관광객은 유산관광객을

방문대상지 속성에 대한 사전 인지, 방문동기, 개인의 지각수준이 모두 충족된 4번째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의 문화관광객과 유산관광객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볼 때, 문화관광의 광범위한 특성으로 인해 유산관광객은 문화관광객의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관광지 답사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문화관광객으로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화관광객의 구매행동적 특성은 관광지 선택의 명확한 목적성, 직접적 관광경험을 통한 자아 탐구, 전통적 사회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새로움 추구, 문화관광지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의 가치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Nuryganti, 1996; Richards, 1996; Urry, 1990; 오정혁·윤유식, 2010a:86에서 재인용).

현대의 관광이 인간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인간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 활동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서태양, 1999), 관광을 통해 접하는 것들 중 문화와 관련되지 않는 요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관광객은 소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문화관광객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관광객 가운데 문화관광의 욕구를 갖는 세분시장을 발견하고 이들 중 문화관광 행동 욕구가 강력한 집단의 관광행동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오정혁·윤유식, 2010b:168).

이런 측면에서 일반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관광 성향이 강한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들이 소구하는 문화관광 속성을 규명하는 일은 문화관광세분시장에 대한 전략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관광객 세분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세분시장별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속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선택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에 바탕을 두고 시장세분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물다(오정혁·윤유식, 2010b:168).

## 2.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 1)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타당성

전문화 개념은 해외에서 여가관광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Outdoor Recreation Activity)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 적용·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Kerstetter *et al.*(2001)에 의해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화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현재 국내에는 전문화를 적용한 연구논문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은 야외 활동에 적용된 사례이며,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화 개념이 적용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관광은 그 특성상 장소에 기반을 둔 야외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화관광객은 장소기반(Place-oriented)의 행동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객에 전문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원화성의 문화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 2) 수원화성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필요성

기존 수원화성의 문화관광객은 주로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의 방문객 위주로 연구되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행태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쳤다(김소라, 2010; 강민애·류시영·엄서호, 2011; 오정학·허상현, 2006).

그러나 전국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문화재단의 ‘효 문화 유적지 답사’, 수원문화재단의 ‘수원화성 테마 여행 프로그램’, 수원박물관의 ‘수원권 문화유적 답사’ 등 곳곳에서 진행되는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의 수의 증가는 문화관광객의 수요가 문화

유산답사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부분 단순한 문화유산 관람보다는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고급 과정에 속한다. 이를 통해 현재 문화관광객은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전문화된 문화관광객으로서 질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관광객 형태인 문화관광 분야의 공급자로서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늘어가는 중장년층 은퇴세대를 위한 복지차원의 문화 프로그램 마련 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

## 제3장

# 조사 설계 및 연구 방법

제1절 조사 설계

제2절 연구 방법



# 제3장 조사 설계 및 연구 방법

## 제1절 조사 설계

### 1. 조사 방법

#### 1) 근거이론(Grounded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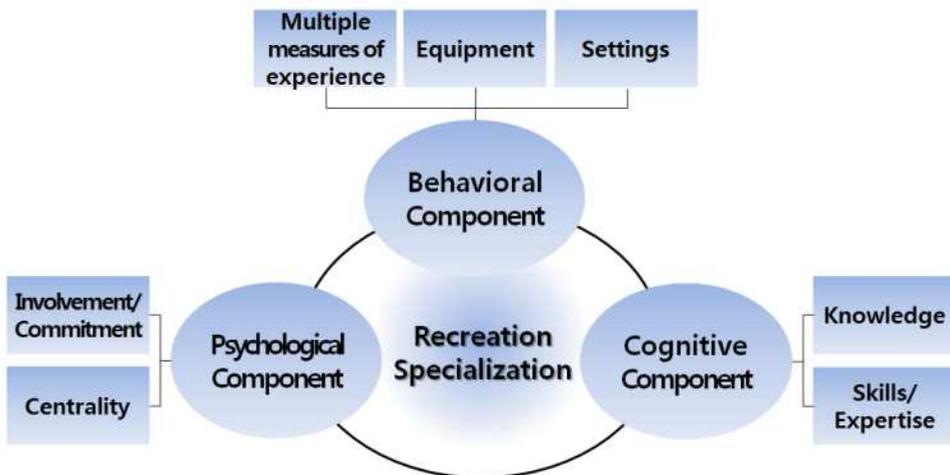
본 연구는 문화관광객이 일반관광객보다 문화관광에 전문화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수원시의 문화관광객과 관련한 실질적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질적 연구방법 중 선행 연구가 없는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방법론인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다른 질적 연구방법들과 달리 이미 설립된 이론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례에 그것을 적용하는 대신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즉, 탐색적, 귀납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무언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탐구할 때 특히 유용한 연구법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가 어떻게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데이터 분석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거이론을 이용한 방법이다.

관광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의 차이와, 인식, 행동 등의 총체로 단편적으로 그 면면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을 통해 관광경험을 분석적으로 체계화하여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을 분석하였다.

## 2) 전문화 구성 개념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문헌조사를 통해 전문화 측정척도를 살펴보고 이 구성요소들이 심층인터뷰 분석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한 전문화 구분 기준으로 활용한 모형은 Manning(2011)이 Little(1976)와 McIntyre & Pigram(1992)의 연구를 적용하여 정리한 <그림 3-1>과 같으며, 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자료 : Little, 1976; McIntyre & Pigram, 1992; Manning, 2011:250에서 재인용  
 <그림 3-1>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성요소

## 2. 인터뷰 참여자 선정

### 1) 표본추출방법

근거이론에서의 표본 수집은 표본분포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통계적 표본수집이 아니라 이론을 생성하기 위한 범주와 속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변찬복, 2012:244에서 재인용). 따라서 임의적이고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객의 관광 경험이라는 현상에 익숙하거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본그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Mays & Pope, 1996: 변찬복, 2012:244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문화관광객이 일반관광객보다 문화관광에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판단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판단표본추출(Judgemental Sampling)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이용하는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로, 의도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의도적 표집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의도적 표집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정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다(김영석, 2000:106).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지식과 연구목적에 기초해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용된다(Babbie, 2002:237).

판단표본추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수원화성 문화관광답사 유경험자’라는 요인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진이 답사 참가자로서 언론사 ‘프레시안’이 운영하는 인문학습원의 강좌 중 ‘화성학교’ 제2강 답사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하면서 참여관찰을 통해 참가자 중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답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인터뷰 참여 요청을 위해 참가자들의 연락처를 답사 프로그램 진행팀에 문의하였으나 참여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

감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여서, 답사안내 인쇄물에 나와 있는 참가자들의 성명과 이메일을 참고하여 온라인 메일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행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연락이 닿은 답사 참가자 6명에 한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화성학교’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수원화성 문화관광답사에 참여한 일반문화관광객도 2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명을 면담하였다.

인터뷰는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표본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전문화의 개념이 초보에서 전문가까지 진행되는 연속체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용의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 명단과 연령대, 성별, 직업 등의 프로필과 인터뷰 일자리는 다음 <표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1> 인터뷰 참여자 프로필

참여자	성별	연령대	직업	인터뷰 일자
참여자 1	여	40대	회사원	6월 11일
참여자 2	남	60대	초등학교 교사	6월 11일
참여자 3	남	30대	공무원	6월 13일
참여자 4	남	50대	대학 교수	6월 16일
참여자 5	남	50대	공무원	6월 17일
참여자 6	여	50대	환경운동가	6월 17일
참여자 7	남	50대	대학 교수	6월 23일
참여자 8	남	50대	대학 교수	6월 24일

## 제2절 연구 방법

###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화 구성개념들을 파악하고 문화관광객을 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한 내용에서 이 개념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문화관광객 및 전문화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서 질적 연구방법 중 연구진의 실질 답사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답사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기법(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문화관광객의 범위 설정을 위한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조사와,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을 위해 국·내외 전문화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서 전문화의 개념 및 측정변수, 분석방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의 주요 결과는 연구 장소와 그 참여자,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Glesne, 2008:78).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관찰은 수원화성 유산답사가 이루어진 2014년 5월 31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문화관광객으로서 답사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외형 및 행태를 기록하며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자들의 연령, 성별, 사회계층, 옷차림, 대화 등을 관찰하며 문화관광객에 대해 이해해나갔다.

심층인터뷰 조사는 답사프로그램 참가자들 중 개별인터뷰에 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여동기 등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을 파악하고 문화관광객 전문화를 평가하였다. 조사는 인터뷰 참여자 8명의 일정에 맞춰 2014년 6월 동안 카페, 회사로비 등 인터뷰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되었다. 인터뷰는 각각 1시간 정도씩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 참여자들로부터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작성하고 숙지한 후 수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내용과 참여자들의 개인적 비밀과 익명성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수원 화성 및 행궁 답사·방문경험과 전반적인 문화관광경험에 대한 조사내용은 참여자의 생생한 표현을 기록하기 위해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연구 윤리성의 신뢰도를 높였다. 응답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음 없이 충분히 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질문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화를 주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여 면담내용의 신뢰성을 높였다.

질문 내용은 Manning(2011)가 Little(1976)와 McIntyre & Pigram(1992)의 연구를 적용하여 정리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요소”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이의 후속연구(Gross & Brown, 2008; Kyle, Absher, Norman, Hammitt, & Jodice, 2007)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화성답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번 답사참가비가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유산답사를 좋아하십니까”, “다른 문화유산답사 참가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유산답사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답사를 하면서 인맥이 늘었습니까”, “문화유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부하십니까”, “문화유산과 관련한 책자구독이나 동호회활동을 하십니까”, “문화유산 관련 서적구매, 답사참가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십니까”, “주변 지인들도 문화유산답사에 관심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질문들을 조사 대상자에 맞게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취하고 녹음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사(Transcription)하였고, 전체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번 읽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면담자의 의도를 충분히 정리하였다.

## 2. 분석 방법

### 1) 코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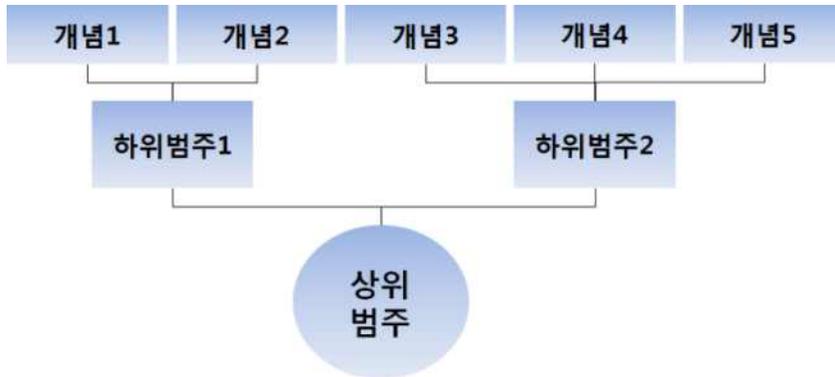
근거이론에 있어서 코딩과정은 원래의 자료를 이론으로 변환하는 데에 중심적인 매카니즘(Mechanism)이라 할 수 있다(Pandit, 1996; Strauss & Corbin, 1998; Goulding, 1999; 변찬복, 2012:246에서 재인용).

근거이론을 통한 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비교분석하여 자료를 범주화 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의 패턴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이론을 구축하는 유기적으로 관련지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내용의 개념화, 개념들의 범주화, 범주들의 핵심범주화의 귀납적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한 분석은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을 통해 범주화 과정 및 패러다임 모델의 개발과정을 거치고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통해 연구주체에 맞는 스토리 라인(Story Line)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분석은 필사된 면담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정독하는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자료를 읽으면서 중점내용에 표시를 하고 개념을 메모하였으며, 자료 전체를 한번 정독하는 동안 초기에 명명된 개념들과 이후에 명명된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수정, 분화,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시 반복하여 읽을 때에는 개념들을 재수정, 축약하면서 주제 범주를 생성하였으며, 모두 5회에 걸친 정독·통독의 과정을 거쳐 주제범주의 타당성을 높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근거이론의 3단계 코딩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개방코딩은 인터뷰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펜으로 혹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반복되는 개념(Concept)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후 이 개념들의 검토를 통해, 좀 더 넓은 하나의 개념 아래 공통된 개념들을 범주(Category)로 묶는 것이 축 코딩이며, 이보다 더 추상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범주를 찾아내는 것이 선택코딩이다. 즉, 개

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거치면서 흩어져 있던 개념들과 범주들을 재조직하고 관계를 정리해가면서, 그 수를 줄여나가며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통합적 범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림 3-2〉 근거이론 코딩과정의 예시

개방코딩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개의 개념으로 분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의적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관광경험끼리 묶어 개념을 형성하고 이름을 붙였다.

이후, 축코딩을 통해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범주로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범주간의 즉, 특정 범주와 다른 범주간의 관계 그리고 특정범주와 그 하위범주간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축코딩에서는 각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범주화하고, 범주화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해당 개념과 일치하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내는 연역법적 연구가 아니라 기초자료부터 이론을 생성하는 귀납법적인 연구이므로 문헌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이끌어 내지는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 발견된 범주들 기존연구 결과와 비교하면서 범주의 외적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 2)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

질적 연구에서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신뢰성은 다각화정도 (Triangulation)에 따라 판단된다. 다각화는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 가지방법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해석과 판단 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내린 연구결론의 신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각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의 분석 및 해석하는 과정에서 3인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동의해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주관 및 편견들을 최소화하고 분석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질적 연구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 제4장

## 분석 결과

제1절 참여자 특성

제2절 조사결과



# 제4장 분석 결과

## 제1절 참여자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문화관광객으로서 수원화성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인 ‘화성학교’에 직접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하기도 하며 그들의 외형 및 행태를 비교하고 기록하며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장소에 대한 이해와 참여자들의 연령, 성별, 사회계층, 옷차림, 대화 등을 관찰하며 문화관광객에 대해 이해해나갔다.

‘화성학교’ 답사 당일은 예외적으로 5월 말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과 같이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를 기록하여, 답사 진행자와 강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당황한 모습이었다. 야외답사를 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날씨였지만 강사가 유동적으로 일정을 조절할 것을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인터뷰를 통해 참여관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 1. 일반적 특성

참여관찰 결과, ‘화성학교’에 참가한 문화관광객들의 연령은 주로 50,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40대, 30대의 순으로 다수를 이루었다. 성별의 구성비는 각 50%정도였으나 여자보다 남자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관광 관련 공무원, 역사학과 관련 교사,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는 40대의 기업대표이사 덩크족 여성, 30대 공무원미혼남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에 해당되었으며, 몇몇 참여자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학력의 특징을 확인하여

지적 욕구가 높은 고학력자로 구성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인터뷰 자료도 확인되었다.

“아무래도 50-60대가 돼야 여유가 있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중략...)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0대 중심으로 보면. 그 또래에서 그 이상이거나, 그 전후거나.”(참여자 6)

“직업군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주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직에 퇴직하셨던 분들이고, 그 때 화성학교 같은 경우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날도 왜 소개할 때 보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주로 학교 쪽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1차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되게 다들, 박사님인 사람들도 있었죠. 왜, 농진청 박사님이셨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마 오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던데요?”(참여자 6)

“공무원 되게 많다 이랬어요. 아 공무원들이 역시 이런 거에도 관심 가질 정도로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참여자 1)

“지난번에는 의사선생님도 오셨어요. 이대 의대선생님, 교수였는데,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연과학 쪽에서 원래 인문 쪽 별로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관심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자 층이 한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화성학교 멤버들 보시면, 한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중략...) 좀 여유 있고, 경제적인 여유 있는데, 왜 지적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강의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강의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누구 강사 온다 그러면 그 강의만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욕구를, 어쨌든 경제적인 건 있고, 충족하고 싶어서 하지 않나? 왜 이런 생각도 들던데. (...중략...) 여기 지금 박물관에서 하는 주역강좌 같은 경우도 보면, 2년 해야 다 끝나

는데, 2년 듣고 또 듣고,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한 30명이 계속 인원이 그대로 듣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몇 명이나 와서 그걸 들을까, 그러는데 2년 듣고 또 듣고. 물론 매니아겠지만. 그런 걸 보면, 다양하게 그 쪽으로 지적욕구에 대한 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참여자 6)

“화성학교답사 끝나고 뒤풀이에 참여했을 때 다들 후기가 재밌었는데요. 그날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답사에 일단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심화로 얘기해다오.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다 심화는 아니잖아요.”(참여자 6)

또 여권이 신장되면서 나타난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의 증가와 여가욕구의 증가로 인해 골드미스의 답사참여가 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거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드미스 같은 여자들. 할 일 없고, 집에 애도 없고, 시댁도 없고, 집안일도 안하는데 시간은 많고 돈 좀 있는 사람들. (...중략...) 왜냐하면 35살 넘으니깐, 친구들 하나 둘 씩 결혼하고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놀기가, 인제... 맨날 백화점 다니고 돈쓰고 이러다가, 혼자 놀다 보니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때쯤 되면. 나 쓸 돈은 있고, 뭐 사는 것도 인제 지겹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문화 생활하다가 맨날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맨날 이렇게 된장짓 하고 다니는데, 재미도 없고. 그렇게 그 정도 여유 되야지 되지 않나. 보통요.”(참여자 1)

문화관광객은 연령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화성학교’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었던 30-40대의 문화관광객들은 일

반관광객들과 달리 지적인 분야로서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다는 과시욕의 측면에서 문화관광에 참여한 듯 보였다.

또 드물게 20대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 자의보다 타의로 참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들은 비자발적인 참여동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도 낮으며 다른 참여자들과의 연령차 때문에 답사무리에 잘 섞이지 못하고 걸도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젊은 친구들이 3, 40대 친구들이 따라다니면 좋지만 그 날도 제가 보기엔 젊은 친구들은 좀 흥미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중략...) 젊은 친구들은 딱 정말 좋아할만한 그런 게 없으면 안 가잖아요. 자기들이 딱 원하는 그거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움직이기 쉽지 않죠. 지난번에도 대학생 친구들은 있었는데, 조금. 근데 흥미는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 왜 수업참여도 라든가, 이런 걸 보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만약 기획을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끼리 딱 묶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연령층하고 합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는 특히. 제가 보기에 안 섞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친구 아니면. 정말 특이한 친구 아니면 안 섞이는 것 같아요.”(참여자 6)

‘화성학교’ 참여자 중 몇몇 참여자들은 교사 등 직업상의 이유로 문화관광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생활에서 활용하여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주변인들과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답사를 쫓 다니면서 이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이런데서 공부한 걸 가지고서 내 나름대로 아이들 수준에, 학부모들 수준에 맞춰서 재구성 하는 거죠. 재구성해서 이야기 하고. 필요하다면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게 하고요. 전문가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아이들은. 내가 듣고 온 것과 관련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재구성을 해요.”(참여자 2)

“그래서 이제 가는 동안이나 이런 중간이나 비행기를 타거나 여정 중에 그 자료를 좀 읽어보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대개 가면 동반자가 있으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소개를 해주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나도 많이 배우고, 학생들도 그런 종류의 취미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만 오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냐.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참여자 8)

나아가 주변인들에게 관련 지식이 많음을 인정받아, 방문목적지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유산에 대해서라 할까요. 뭐 좀 주변정보가 있다고. 생각하죠. 가령 우리 직장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번에 어디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볼까.’ 하고 저한테 묻기도 하죠.”(참여자 5)

또 참여관찰 중에 이들은 주로 서울 등 수원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또는 수원화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금번 답사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관찰 결과 나타난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수원화성 문화관광객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군을 가지며 지적 욕구가 높은 고학력자인 50-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외형적 특성

‘화성학교’ 참여자들은 답사가 야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야외활동에 적합한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운동화나 등산화, 차양을 위한 모자와 선글라스, 물병과 손수건, 배낭 등을 구비하였다. 특히 일반관광객과 다르게 노트와 펜 등 필기도구를 지참한 모습이 문화관광객의 특성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4-1〉 수원화성 답사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모습

## 3. 행태적 특성

### 1) 참여자간 개인정보 공유 활발

‘화성학교’ 참여자들은 답사 시작 시,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개인의 직업, 참여동기, 관심사 및 관심 정도 등을 공유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타 유형의 관광객과는 구별되는 문화관광객만의 행태적 특성으로 짐작된다.

## 2) 필기 및 질문에 적극적인 답사태도 보유

답사 참여자들은 일반 회사원부터 학교 교사까지 다양한 직종의 참가자들이 모인만큼 본 답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목적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령 직장이 수원으로 옮겨져 근무 시간 외 여가시간을 통해 수원화성을 방문, 좀 더 깊이 있게 수원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답사에 참여한 참가자가 있는가하면, 문화재에 평소 관심이 많아 각 지역문화재 답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도 있었다. 특히 각 지역문화재 답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했던 참가자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 또는 관련 이야기 등을 이끌어내며 왕성한 참여도를 보였다.

인터뷰 자료에서도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답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원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특정하게 수원화성에 관심이 있던 경우 등 다양한 이유에서 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의문화유산답사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참여자 4)

“원래 이런 거 좋아했어요. 원래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참여자 3)

“수원화성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 있어서 참여했어요.”(참여자 1)

“35살 넘으니깐, 친구들 하나 둘 씩 결혼하고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놀기가, 인제... 맨날 백화점 다니고 돈쓰고 이러다가, 혼자 놀다 보니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관심이 생기더라고요.”(참여자 1)

다양한 동기를 갖고 문화관광에 참여하기 때문인지 답사 참여자들은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답사자세를 보이며 강사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답사 당일은 더운 날씨 탓에 50-60대의 위주의 답사 참여자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학습의지가 남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궁금했던 점을 의욕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필기도 꼼꼼히 하는 답사 참여자를 여러 명 확인하였다.

### 3)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 형성

참여자들은 질문을 하면서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는 듯 보였으며 답변하는 강사도 신이 나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높은 지식욕구 등 적극적인 답사 자세에 대한 근거는 인터뷰 자료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항상 강사 옆에 붙어 다니면서 꼼꼼하게 계속 질문하고, 자꾸 해요. 전문가들한테 자꾸 질문, 그 도움을 받으면서 자꾸 하나하나 보태가는 거죠. 자료도 뒤지고, 질문도 하고. 그런 기본 지식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 (...중략...) 강의 다니면서 하다 보면 설명도 듣고 궁금하면 인터넷에 요즘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지식은 대충 다 알고 있죠. 궁금하면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니까 비판적 시각에서도 보기도 하고.”(참여자 2)*

*“그전에 공부하고 가죠. 왜냐면 그런 저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서 사진만 찍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중략...) 그 날 답사 같이 하면서 얘기 듣고 하니깐, 정말 한 차원 높은 지식이 올라가는 것 같고.”(참여자 3)*

#### 4) 관련된 다른 분야로 관심분야 확장

참여자들은 높은 지식 바탕으로 문화유산뿐 아니라 생태환경과 같은 관련 분야에까지 관심분야를 확장해온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철학애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문화유산이 다 함축돼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이런 사상으로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참여자 3)

“자연환경하고 그 이 역사문화하고 관계 지어서 많이 보게 돼요. (...중략...) 태백산도 들꽃 탐사라는 주제로 가면 들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가면 정암사도 들르고 다 들르면서 같이 다 연결 지어서 그렇게 다니죠.”(참여자 2)

#### 5) 심화과정의 강의 및 수준 높은 질문 내용 등 높은 지식 수준 보유

참여자들은 평소 문화관광지와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학습에 열중이며, 이를 통해 습득한 높은 기본지식 수준을 나타내듯 질문의 내용 또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강의의 수준도 심화과정의 것 이어서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했었다면 많은 부가설명이 필요할 듯 보였다. 문화관광객의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지식수준은 인터뷰내용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문화관광에 대한 미래의 방향을 제안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문화관광은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마음의 동인을 찾고, 마음의 동인에다가 손가락 하나 얹어주고. 그 다음에 손 한 번 잡고 끌어주든지 뒤에서 밀어주든지 하는. 결국은 움직이는 주체는 사

람이야.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게, 난 문화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참여자 7)

“유산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문화라는, 그 소개로다 한정을 했을 때, 그 때는 유산관광이 되는 거지만은, 문화관광은 전통과 현대와 모든 거를 아우르는 거지. 자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소재부터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참여자 8)

## 6) 문화관광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문화관광을 위하여 이들은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 및 노력의 투자도 적극적이었는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된 답사프로그램을 자주 확인하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화성학교’ 참가비용이 당일 6만원임을 고려할 때, 매번 참가비용을 흔쾌히 지불하는 것도 열정의 척도로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위에서 나타난 ‘화성학교’ 참여자의 특성들은 참여자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답사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답사에 임했고, 관심수준 및 기본지식수준도 높았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몇몇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들보다 필기나 질문에 더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반면, 몇몇 참여자들은 참여는 하나 필기나 질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즉, 답사에 참여하는 자세의 수준은 다들 비슷하게 보이나, 필기나 질문을 한다는 점이 외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미루어볼 때, 답사 참여자 간에도 위요인들에 대한 개인적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전문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객은 대부분 경제적·시간적 여유와 지적 욕구가 있는 직업군을 가진 50-60대이며, 직업특성 등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어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필기 및 질문에 적극적인 답사태도를 나타내었으며, 질문을 통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높은 지식 욕구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분야 뿐 아니라 생태, 철학 등 관심분야를 확장해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화관광 참여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많은 경험에서 우러난 지식의 폭과 깊이는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안할 정도로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2절 조사결과

### 1. 개방코딩

분석을 위해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개의 개념으로 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의적인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관광경험끼리 묶어 개념을 형성하고 이름을 붙였다. 그 결과, 전문화의 구성개념이 나타난 45개의 개념과, 14개의 하위범주 및 6개의 상위범주로 다음 <표 4-1>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4-1> 문화관광객 전문화 개념의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문화관광의 매력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관심	수원 관심, 답사 관심, 역사 관심
	단순재미 및 지식확인의 즐거움	지역 특색에 매료됨, 재미 추구, 의미 추구, 지식의 사실 확인
삶의 중심부분으로서 문화관광	삶의 중요부분	문화유산답사에 대한 열정, 비용 가치 있게 여김, 힐링, 미래구상, 삶과 연계성, 준전문가 매니아, 직업 연관성
문화관광경험을 위한 투자	다양한 경험의 축적	답사횟수, 과거동호회운영경험, 수동적 경험의 축적, 많은 답사 통한 지식축적
	많은 역사적 장소 방문	역사적 장소 방문
	비용·시간·노력 투자	참가비 지불, 강좌수강, 노력·시간 투자, 서적 구매, 정보검색 장비(인터넷·서적)
문화관광경험의 성과	높은 지식수준	지적 자신감, 분야 전망해 볼 수 있는 지식수준
	신체적 기술의 축적	체력이 좋음
	사회적 기술의 축적	인맥 표현, 지적 인맥 추구
문화관광경험의 외부로의 확대	친구·가족과의 관계도모	친구 관심분야 같음, 답사 통해 관계 돈독해짐, 가족 함께 함
	동호회활동을 통한 관심사 공유	다수·장기간 동호회 활동, 동호회 욕구, 공통취미 공유욕구
	책자 정기구독	문화관광 관련 국내의 저널·논문 및 온라인사이트 참고
자기표현수단으로서 문화관광	차별화 욕구	인맥(인적네트워크)의 차별화(남과 다른 대접 원함), 남과 다름 추구, 체험 차별화 원함, 소수정예 강의 선호, 심화 수준 강의 선호, 복직거림 꺼림
	고급화 욕구	전문 인솔자 선호, 비용보다 질 선호, 양보다 질 선호

## 1) 인지적 요소

Manning(2011:250)이 정리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성요소 중 인지적 요소는 지식(Knowledge)과 기술·전문지식(Skills·Expertise)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전문화 연구의 인지적 요소는 척도를 이용한 양적 측정이 일반적이었다.

지식의 경우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지식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문화관광분야에 전문화 개념의 적용을 시도한 Kerstetter, Confer & Graefe(2001)의 연구와 같이 ‘해당 방문지에 대한 사전지식 유무’, ‘해당 방문지에 대한 지식수준 자가평가’와 같이 측정하여 해당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개념의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참여관찰 내용과 심층인터뷰 내용을 통해 문화관광객의 높은 지식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는 ‘지적 자신감’, ‘분야 전망해 볼 수 있는 지식수준’이라는 개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술의 경우 기존 야외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사용되던 능력의 의미가 포함되었던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객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기술의 축적’, ‘사회적 기술의 축적’이 도출되었다. 즉, 답사활동을 다수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체력의 증진, 인맥(인적 네트워크)의 생성과 이를 표현하고 늘려가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났다.

특히 인맥은 기존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전문화 측정척도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내환경에서 두드러지는 전문화 특성으로 보인다. 인맥의 개념 발견을 통해 문화관광은 지식 중심 활동이라는 특성상, 지식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요한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인맥은 친구·동호회의 의미에서 정서적 요소에 속했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양적인 표현으로도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농진청에 유봉학 교수님이 몇 번 왔어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하죠. 이제 화성 알람이나 수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거나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분을. 그러니까 유봉학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도 두 번이나 전 직원인지 어쨌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어요. 한 두 번 했고. 김준혁 교수도 몇 번 왔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참여자 5)

“알고 싶어서 사실 은 거예요. 인연 좀 알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같이 공부 좀 하려고.”(참여자 3)

문화관광은 ‘지식(Knowledge)’ 중심 활동이며, 사회적 분위기도 지식에 대한 평가가 높은 특성이 있어 보편적으로 문화관광은 고급, 양질의 관광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관광 전문화의 인지적 요소 분석결과들은 어느 정도 문화관광의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 정서적 요소

Manning(2011:250)에 의하면 정서적 요소는 관여·몰입(Involvement·Commitment)과 중심성(Centrality)으로 구성되며, Kerstetter *et al.*(2001)은 문화관광객 전문화의 정서적 요소를 ‘해당 방문지에 대한 인지 정도’, ‘유사 장소 방문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정서적 요소는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관심’과 ‘단순재미 및 지식확인의 즐거움’, ‘삶의 중요부분’, ‘비용·시간·노력의 투자’, ‘친구·가족과의 관계도모’, ‘동호회활동을 통한 관심사 공유’, ‘책자 정기구독’, ‘차별화 욕구’, ‘고급화 욕구’로 구성되었다.

이 중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관심’ 개념을 통해 문화관광객은 단순 즐거움이 아닌 지식의 축적으로 인한 즐거움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웠던 ‘문화관광객의 지적 즐거움 추구’라는 정서적 요소의 구성개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배경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막 봤으면, 그냥 산책했을 거야, 아마 정말로. 산책하고 밥 먹고 왔겠지. (...중략...) 다큐멘터리 뭐 여행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더 가고 싶어져요 사실 확인. 그런 방송 보면 실제로 가서 보고 싶어.”(참여자 1)*

또한 ‘지역 특색에 매료됨’과 같은 개념이 도출되어 문화관광객은 문화관광경험과 관련하여 해당 방문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심은 문화관광 활동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면서 장소 자체에 대한 애착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화 연구는 대부분 장소에 대한 경험측정 위주로 심리적 측정이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장소 애착에 대한 개념이 도출됨으로써 정서적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도시 안에 이런 차가 옛날 지었던 성벽 안으로 지나가고 이런 게 너무 희한한 거 같아요. (... 중략...) 옛것과 현재가 공유되는 게 기분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너무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참여자 1)*

활동과 주변인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범주인 ‘친구·가족과의 관계 도모’는 친구 관심 분야 같음, 답사 통해 관계 돈독해짐, 가족과 함께 함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즉, 문화관광객은 관심분야가 같은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답사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동호회활동을 통한 관심사 공유’ 범주는 다수·장기간 동호회 활동, 동호회 욕구, 공통취미 공유 욕구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동호회 활동은 전문화 진입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점차 활동에 전문화될수록 이를 통해 함께 하는 활동을 즐기는 행태가 나타는 전문

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문화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참여자(30-40대)는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활동 경력이 오래된 참여자(50-60대)에 비해 전문화 진입단계에 속하므로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동호회 활동 중이었는데 이는 문화관광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부로의 관심확대 즉, 개인적 관심의 사회적 확대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문화관광 참여자들은 평소에 관심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호회에서 서로 관심사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기쁨과 일종의 동질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동호회 활동은 지식 중심 활동인 문화관광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계기로서 문화관광객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다.

*“지금도 저는 이제 답사 모임이 되면 하고 싶은데. (...중략...) 만약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모을 수 있으면은, 모임을, 답사회 모임을 하면, 좋죠. 여건이 되면은 하고 싶죠. 앞으로도.”(참여자 5)*

‘삶의 중요부분’ 하위범주는 문화유산답사에 대한 열정, 비용 가치 있게 여김, 힐링, 미래구상, 삶과 연계성, 준전문가·매니아, 직업 연관성의 7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답사활동이나 문화관광을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실 남들이 그래요. 나보고 열정이 너무 넘친다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이런 것도 쫓아다니면서 듣고. 시간 나니까. 시간 나니까 그래요. (...중략...) 정보 얻는 거는 개인의. 그것도 열정이죠. 열정이 있으면 딱 이리저리 뒤져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참여자 2)*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1일 6만원에 달하는 문화관광 참가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비용지불과 다른 관점의 결과로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비물질적 자원인 노력을 포함한 ‘비용·시간·노력의 투자’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용이 비싸다 비싸지 않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자기 월급 중에 내가 이런 자기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쓰는 거죠.”(참여자 2)

“처음에 프레시안 답사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 원짜리도 있었고. 보면 비싼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답사는 6만원 비용에 강의 듣고 같이 술한 잔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한 60만 원짜리 강의 듣지 않았다. 아깝지 않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

“이번 문화유산답사 신청할 때 6만원이면 비쌌어요. 인문학습원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다 비싸요. (...중략...)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는 돈 안 아까웠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참여자 1)

참여자들은 문화관광에 대한 높은 투자의사를 가진 만큼 답사에 대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삶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현재 삶 및 직업과의 연관성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상과도 관련지어 문화관광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직업과 관련되어 문화관광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개인적 관심을 넘어서 전문가·기획가적 관점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행을 가면 내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체험을 했을 때 이거를 내 연구나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면 그 연결고리를 찾고,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걸 응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하는데 관심사가 있지.”(참여자 8)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학생들 활동과 학습을 계획할 때, 경험이 빈곤하면 기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략...) 그러니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또 재미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흥미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참여자 2)

또한 참여자들은 문화관광 관련 국내외 저널·논문 및 온라인사이트를 참고하는 등 ‘책자 정기구독’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화관광 관련 지식을 얻고 있었다.

“세계문화유산관리위원회인가 이코머스(ICOMOS)인가를 정기적으로 보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오는 잡지, 그 다음에 수원에서 문화관광 관련 저널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나와요. 그리고 문화컨텐츠위원회 사이트, 삼성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KDI 이런 국립이나 민간 학술단체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문화관광 관련 새로운 이슈나 주제들이 나오면 그걸 이메일로 알려줘요. (...중략...) 그런 정보는 주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봐요. 관광관련해서는 WTO하고 APEC에 보면 관광분과가 있어요. 그쪽 자료를 주로 보고 다운받고, 학위논문을 정기적으로 좀 살펴봐요.”(참여자 8)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된 전문화 구성 개념이 ‘차별화 욕구’와 ‘고급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차별화 욕구’는 인맥의 차별화(남과 다른 대접 원함), 남과 다른 추구, 체험의 차별화 원함, 소수정예 강의, 심화 수준 강의, 복적거림 꺼림의 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급화 욕구’는 전문 인술자 선호, 비용보다 질, 양보다 질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차별화(Differenciation)와 고급화(Gentrification)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먼저 차별화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된 상태가 되게 함”<sup>2)</sup>이며, 고급화는 “물건이나 시설

따위의 품질이 뛰어나고 값이 비싼 상태가 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sup>3)</sup>을 의미한다. Willey, Shaw, & Havitz(2000)는 관여(Involvement)의 개념에서 ‘자기 표현(Self-Expression)’이 내부(Internal)로 향하는 것과 외부(External)로 향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에서 차별화는 참여자 본인이 남과 다름, 구별됨을 원한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급화는 보다 양질의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분하였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차별화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답사방식과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어 북적거림 꺼림, 소수정예 강의를 선호 등과 같은 개념이 도출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었다. 특히 소수정예 강의를 선호한다는 점은 일반관광객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강의가 아닌 심화수준의 소수를 위한 강의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폐쇄성이 드러났다.

“내가 인문학습원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남편이랑, “인문학교 프로그램,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다.”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가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레시안 인문학교 내에서만 메일 발송하고, 인문스쿨에만 알려지는 거잖아요. (...중략...) 불특정다수에게 짝 하는게 아니라 동호회 안에만 정보가 공유가 돼서 여기만 신청서를 받는 거잖아요.”  
(참여자 1)

“화성학교답사 끝나고 뒤풀이에 참여했을 때 다들 후기가 재밌었는데요. 그날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답사에 일단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심화로 얘기해다오.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조

---

2) 네이버 국어사전

3) 네이버 국어사전

금 머리가 아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다 심화는 아니잖아요.” (참여자 6)

또 문화관광객들은 전문 인솔자를 선호하고, 비용보다 질 또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고급화 욕구’의 행태를 나타냈다. 이들은 학식 있는 전문 인솔자를 통해 자신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즉 자신이 알아보는 전문가의 수준이 자신의 수준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었다.

“누가 인솔자가 될지는 사실 복불복이잖아요. 이번 답사 같은 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지. 이번 답사처럼 교수님이 와서 설명해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답사프로그램은 교수님도 괜찮은데 교수님 밑에 공부하는 제자 정도도 이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인 투어 인솔자나 문화재 도슨트보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보다 훨씬 공부했던 사람이니깐, 더 전문적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 수준만 되어도 훨씬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중략...) 사실 궁이나 안동하회마을의 해설사분들은 자원봉사자인 경우도 있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만담하다가 끝나기도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참여자 1)

이러한 참여자들은 고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용보다 질,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여 양질의 답사를 위하여 흔쾌히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많은 수의 관광지를 답사하는 것보다 한 개를 보아도 자세히 보는 것을 선호하였다.

“비용은 아깝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궁투어를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난 돈내겠어요 진짜. 나는 수원사람이 아니라 수원에 대한 배경지식도 없는데 이번 답사 가서 내가 보고 싶던 거 보고, 또 설명도

괜찮아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중략...) 돈은 사실 거기 오신 분들 다 나이도 좀 있고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사실 3만 원, 6만 원, 2만 원 그게 비싸다 이런 거보다는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돈 대비 퀄리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중략...) 돈을 좀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저도 이번 답사같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 갖고 써칭 많이 하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이번 답사에 굉장히 만족해서 경주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을 게 많은 곳을 여기저기 슬쩍 둘러보고 가는 식이 아니고 되게 천천히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어요. (...중략...)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천천히 늦게 보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가면 여기저기 정신없이 보고 다니는게 너무 부담되고 뒤에서 같이 온 남편을 놓쳐서 찾고 이러니깐. 이번 답사처럼 천천히 보니깐 너무 좋더라고요. 여유 있게. (...중략...)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 듣고 가는 거는 별로 없기도 했고 프로그램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렇다고 관광버스에서 관광안내원이 하는 좀 그렇잖아요. (...중략...)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게 난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딱 빨리 여기로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보시고, 40분까지 오시고”. 이게 너무 조급증이 나오. 난 여기서 앉아서 더 멍 때리고 싶은데, 너무 막 몇 시까지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 갖고.” (참여자 1)

위와 같은 구성개념들의 도출을 통해 문화관광객이 자기를 표현하기 좋아하고, 타인이 본인 무리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폐쇄성을 갖는 특징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서적 요소의 구성개념 도출은 기존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웠던 개념들 특히 ‘차별화 욕구’, ‘고급화 욕구’와 같은 개념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해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3) 행동적 요소

Manning(2011:250)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 개념 중 행동적 요소는 ‘경험 다중측정(Multiple measures of Experience)’, ‘장비(Equipment)’, ‘장소(Settings)’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적 요소는 양적으로 측정이 되는 변수로, 여기서 ‘경험’은 경험의 횟수, 기간 등으로 측정되며, ‘장소’는 방문 장소 수, 장소 반복방문 횟수 등으로 측정된다. ‘장비’는 야외레크리에이션의 경우 요구되는 장비, 도구 등을 의미한다.

문화관광분야에 전문화 개념의 적용을 시도한 Kerstetter *et al.*(2001)는 행동적 요소를 ‘이번 여행 동안 지역 내 총 지출’, ‘유산 관련 구독잡지 수’와 같은 ‘투자(Investment)’의 개념과, ‘작년 동안의 역사적 장소 방문일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장거리이동(50마일 이상)한 횟수’, ‘지난 12개월간 역사적 장소를 방문한 총 횟수’, ‘작년 동안 지역 외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한 횟수’와 같은 ‘과거경험(Past Experience)’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동적 요소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 ‘많은 역사적 장소 방문’, ‘비용·시간·노력의 투자’로 구성되었다. 이 중 ‘비용·시간·노력의 투자’는 기존 전문화의 행동적 요소의 양적인 측정(횟수 등)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간·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구성개념을 표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각각의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다양한 경험의 축적’은 답사횟수, 동호회 참여횟수, 경험의 축적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동호회 참여 횟수는 기존 전문화 연구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개념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경험의 다중측정을 위한 새로운 구성개념으로 ‘동호회 참여횟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유산답사모임은 이제 94년도에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에 원예 연구소 내에서 만들었어요. 답사모임을 했는데 그걸 5년 정도 했어요.” (참여자 5)

또한 ‘다양한 경험의 축적’ 개념은 경험의 축적을 통한 지식의 축적을 포함하며, 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험의 축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답사횟수, 과거동호회 운영경험, 수동적 경험의 축적, 많은 답사 통한 지식축적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답사횟수와 과거 동호회 운영경험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답사 참가횟수는 작년 재작년 통 털어 한 열 번 될 거예요 아마. 이번 ‘화성학교’ 참가한 것 포함해서. (...중략...) 서울학교와 고을학교는 둘 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5월 달에는 시간이 되서 두 군대를 다 갔어요. 서울 안산하고 구미 선산하고. 또 시간 안 될 때는 뭐 한 번 가기도 하고. 둘 다 시간이 안 맞으면 한 번도 못 가기도 하고 들쭉날쭉 해요. (...중략...) 근래에는 초록교육연대라고 올해 9년째에 들어가는데 처음 같이 만들어서 계속 공동 대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회원들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생태, 문화, 역사 행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것도.”  
(참여자 2)

“유산답사 동호회 운영을 5년간 했고 매월 한 번씩 답사를 갔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참여자 5)

“근래에는 초록교육연대라고 올해 9년째에 들어가는데 처음 같이 만들어서 계속 공동 대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2)

“제가 답사모임은 94년도에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내에서 만들었어요. 유산답사 동호회 운영을 5년간 했고 (...중략...) 저는 이제 답사동호회를 만들어서 한 번 운영을 해본 거죠.”(참여자 5)

수동적 경험의 축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은 사학과를 다니면서도,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중략...) 대학원 들어갔는데 제 지도교수가 답사에 광적으로 미쳐있는 분이었어요. (...중략...) 그 분한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매주 등산을 가고 답사를 가고, 그러다가 훈련이 된 거죠.” (참여자 4)

많은 답사 통한 지식의 축적은 다음과 같다.

“지식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공부한 거에 계속 교직원수를 통해서도 쌓아가고. (...중략...) 여러 문화유산답사를 통해 강의 듣다보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새로운 게 막 보태지거든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럼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뒤지면서 거기다 보태는 거죠 계속.” (참여자 2)

‘많은 역사적 장소 방문’은 역사적 장소의 방문횟수를 표현하였다.

“프레시안에 그런 답사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역사·문화 쪽으로는, 화성학교는 두 번째 할 때 갔고 서울학교는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최연 선생님이 하시는 고을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순천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번에 다녀온 구미 선산 같은 지방으로 다니는 건데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2)

‘비용·시간·노력의 투자’는 관련 장비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즉, 문화관광객의 경우 서적을 구매하거나 정보검색 장비로서 인터넷·서적을 이용한다거나, 문화유산답사를 위한 참가비 지불, 강좌 수강, 노력·시간 투자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서적 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 관련 책은 뭐 여행안내 책이 있죠. 제가 짝 모아놓은 유홍준 교수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있잖아요. 그 책은 저희 동아리에서 회비로 구입했고, 또 관련 역사기행서, 역사책도 기본이잖아요 거의. 우리 사무실 도서관에 가면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고.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전국시리즈 했잖아요. 80년대 초인가. 그런 것도 좋은 거 많더라구요. 이제 답사회 운영할 때는 그런 책들 찾아보기도 했죠. (...중략...) 조금씩 이제 좀 꼭 필요한 책만 동호회 회비를 들어서 꼭 필요한 책만 사고 그 외에는 빌려보거나 했죠.” (참여자 5)

“서적 구매는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찾아보기도 하고. (...중략...) 인터넷과 서적·문헌 자료를 비교하면 6대4나 7대3? 인터넷 자료가 훨씬 많지. 또 시각 자료가 풍부하니까 그것도 보고. 그리고 내가 좀 깊이 관심 있는 (학술적인) 부분들은 문헌자료가 많지.” (참여자 8)

또한 강좌수강의 개념을 통해 문화관광객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강좌를 수강함을 확인하였으며, 문화관광이 지식 중심의 활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강좌도 들어요. 프레시안에서 하는 거. 일주일마다 저녁시간에 듣고 지금은 또 두 개를 듣고 있어요.” (참여자 2)

“오마이뉴스에 최진기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쭉 듣다가 (...중략...) 최진기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세요. 건축양식이라든가 미술사, 그림 설명 같은 거. 그거 보는 게 책 한 권 읽는 것 같아요. 책 한 두 권 정도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강의 잘 듣는 게.” (참여자 3)

위에서 언급하였듯 기존의 행동적 요소는 양적인 측정(횟수 등)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문화관광객들은 비물질적인 요소인 ‘노력·시간의 투자’도 아끼지 않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 중 노력의 경우, 문화관광 답사는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가를 위해서는 노력의 투자가 요구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문화관광은 운영체제의 특성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성을 더 띄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프레스시안 인문학습원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짝 뜨거든요. 뭐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걸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하면서 관심이 가는 거죠. (...중략...) 프레스시안은 강좌 개설한지가 4년인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 그전에도 한겨레 문화센터 같은 언론사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또는 제가 전교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전교조 쪽에서도 그런 강좌들 하거든요.” (참여자 2)*

*“화성학교 오려고 뭐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미리 메일 보내준 거. 그거는 한 번 읽어봤어요. 되게 짧으니까.” (참여자 1)*

행동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인터뷰 참여자들은 경험이 많을수록 즉, 전문화될수록 경험 횟수, 방문지 개수 등 양적으로 측정되는 행동적 요소를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략적인 횟수 등을 헤아려보다가 이내 포기하면서 ‘많이’, ‘여러 차례’ 등의 어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의 축적’ 범주를 통하여 행동적 요소의 개념이 문화관광객의 행태를 모두 표현하기 어려워 양적으로만 측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경험의 축적’, ‘노력·시간 투자’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2. 축코딩

축코딩은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델에 의한 범주화 과정을 의미한다. 축코딩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분해되었던 원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서 속성과 차원을 중심으로 상위범주를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여기서 속성은 하나의 상위범주에 속하는 특성을 말하고, 차원은 연속선상에서 속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채동현·양일호·정성안, 2011:1135에서 재인용). 또한 축코딩은 중심현상과 인과적 관계,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6가지 측면에서 범주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코딩을 통해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범주로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범주간의 즉, 특정 범주와 다른 범주간의 관계 그리고 특정범주와 그 하위범주간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축코딩에서는 각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범주화하였다.

### 1) 인과적 조건: 문화관광의 매력

인과적 조건이란 현상의 발생 또는 전개, 발전과 일정한 인과적 관계에 있는 선행사건, 즉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8; 김소은·송운강, 2014:430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표 4-2>와 같이 나타났으며, ‘문화관광의 매력’으로 명명하였다. 문화관광의 매력은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관심’과 ‘단순재미 및 지식확인의 즐거움’의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어, 문화관광객이 문화관광을 시작하게 되는 참여동기이자 목적의 의미를 갖는다.

〈표 4-2〉 축코딩 결과 : 인과적 조건

인터뷰 내용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수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참여자 1)	수원 관심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관심	문화 관광 매력
화성에는 제가 관심이 있죠. 제가 취미로 역사책 보는 일이라 역사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참여자 2)			
사실 저희가 궁궐 같은데 가도 문화해설사랑 같이 투어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중략...) 문화유산 보러 가고 싶어도 이번 답사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가는 프로그램 있으면 가겠는데 없어요.(참여자 1)	답사 관심	지역 및 역사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문화유산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참여자 5)			
저는 뭐 문화유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 과제 같은 게 계속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 있어요.(참여자 2)	역사 관심	지역 특색에 매료됨	
수원화성은 옛것과 현재가 막 공유되는 게 (...중략...) 멋있는 거 같아요 되게. 진짜 유니크한 거 같고 다른데서 보지 못 하는 희한한 풍경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 도시 분위기라는 게 참 희한하다. 막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참여자 1)			
(답사는)재미있어요. 이것을 해갖고 우리가 뭔가를 막 얻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과정이 너무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내 돈 지불한 시간이 재밌으면 돼요. (...중략...) 문화제는 호기심으로 뭐 보고 싶긴 한데. 답사는 내가 학생도 아니듯이 공부해서 가긴 좀 그렇잖아요. (...중략...) 너무 재미있었어요.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답사하고 나서 너무 알차다고 해야 하나.(참여자 1)	재미 추구	단순 재미 및 지식 확인의 즐거움	
그런데 사실 나 혼자 가면 그렇게 (답사를, 화성의 역사를 알아보려) 했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사실 그냥 산책밖에 안 되요. 정말, 딱 산책. 그런데 이번 답사를 통해 그런 이야기 듣고 보고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막 봤으면, 그냥 산책했을 거야.(참여자 1)	의미 추구	지식의 확인	
다큐멘터리 뭐 여행프로그램. 그런거 보면 더 가고 싶어져요 사실 확인. 그런 방송 보면 실제로 가서 보고 싶어.(참여자 1)			

## 2) 중심 현상

중심현상이란 일련의 행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 중심현상은 자료 내에 제시되는 중심생각으로 관광활동 중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현상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2008; 김소은·송운강, 2014:43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행동은 중심현상인 ‘삶의 중심부분으로서 문화관광’을 중심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객들은 문화관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참가비용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힐링과 미래구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있었다. 이들은 문화관광에 대한 개인적 관심뿐 아니라 직업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준전문가, 매니아 수준에 이르렀을 정도로 문화관광과 삶의 깊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에 대한 축코딩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축코딩 결과 : 중심현상

인터뷰 내용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사실 남들이 그래요 나 보고 열정이 너무 넘친다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이런 답사도 쫓아다니면서 들죠. (...중략...) 답사정보 얻는 거는 개인의 열정이죠. 열정이 있으면 막 이리저리 뒤져가지고 참가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참여자 2)	문화유산 답사에 대한 열정		
비용이 비싸다 비싸지 않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 자기 월급 중에 내가 이런 자기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쓰는 거죠.(참여자 2)	비용 가치 있게 여김		
처음에 프레시안 답사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6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 원짜리도 있었고. 보면 비싼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답사는 6만원 비용에 강의 듣고 같이 술 한 잔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한 60만 원짜리 강의 듣지 않았나. 아깝지 않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	비용 가치 있게 여김		
이번 문화유산답사 신청할 때 6만원이면 비쌌어요. 인문학습원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다 비싸요. (...중략...)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는 돈 안 아까웠어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참여자 1)	힐링		
문화유산답사를 하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찌든 삶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날씨에 이렇게 구경하면서.(참여자 3)	힐링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퇴직을 했을 때 (...중략...)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알아보는 거예요. 솔직히.(참여자 3)	미래 구상	삶의 중요 부분	삶의 중심부 으로서 문화 관광
저는 문화유산답사가 자기 생활이라 할까요, 자기 삶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일관되게 같이,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나, 집에서 사는 거, 생활하는 거나 또는 취미활동이 다 일관된, 비슷한 흐름으로 자기 색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색깔에 다른 사람을 끌어넣고 싶은 거죠. 뭐 모임도 하고 싶고.(참여자 5)	삶과 연계성		
제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딘가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나, 쫓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학 쪽에 쫓힌 사람들 중에는 요즘 인터넷문화 때문에 블로거든가 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진짜 전문가·교수보다 재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화되고 더 많은 지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답사문화들이 더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던데요?(참여자 6)	전문가 매니아		
여행을 가면 내가 어디 가서 뭘 보고 체험을 했을 때 이거를 내 연구나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하면 그 연결고리를 찾고,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걸 응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하는데 관심이 있지.(참여자 8)	직업 연관성		
학생들 활동과 학습을 계획할 때, 경험이 빈곤하면 기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략...) 그러니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또 재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흥미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참여자 2)			

###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란 인과적 조건에 의하여 중심현상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중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컫는다(Strauss & Corbin, 2008; 김소은·송운강, 2014:43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조건인 ‘문화관광의 매력’에 의하여 ‘삶의 중심부분으로서 문화관광’이라는 중심현상 일어나게 되는 원인으로서 ‘문화관광경험을 위한 투자’를 맥락적 조건으로 보았다. 문화관광객은 ‘문화관광의 매력’이라는 인과적 조건에 의해 문화관광에 입문하지만, ‘다양한 경험의 축적’, ‘많은 역사적 장소 방문’, ‘비용·시간·노력의 투자’와 같은 맥락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문화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표 4-4〉 축코딩 결과 : 맥락적 조건

인터뷰 내용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문화유산답사 참가횟수는 작년 제작년 통 털어 한 열 번 될 거예요 아 마. 이번 ‘화성학교’ 참가한 것 포함해서. (...중략...) 서울학교와 고을 학교는 둘 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5월 달에는 시간이 되서 두 군데 를 다 갔어요. 서울 안산하고 구미 선산하고 또 시간 안 될 때는 뭐 한 번 가기도 하고, 둘 다 시간이 안 맞으면 한 번도 못 가기도 하고 들쭉날쭉 해요. (...중략...) 근래에는 초록교육연대라고 올해 9년째에 들어가는데 처음 같이 만들어서 계속 공동 대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이 그 회원들인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생 태, 문화, 역사 행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것도.(참여자 2)	답사 횟수	다양한 경험의 축적	문화유산 경험을 위한 투자
유산답사 동호회 운영을 5년간 했고 매월 한 번씩 답사를 갔어요. 엄 청 열심히 했어요.(참여자 5)			
근래에는 초록교육연대라고 올해 9년째에 들어가는데 처음 같이 만들 어서 계속 공동 대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참여자 2)	동호회 운영 경험		
제가 답사모임은 94년도에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내에서 만들 었어요. 유산답사 동호회 운영을 5년간 했고 (...중략...) 저는 이제 답 사동호회를 만들어서 한 번 운영을 해본 거죠.(참여자 5)			
사실은 사학과를 다니면서도,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중략...) 대학원 들어갔는데 제 지도교수가 답사에 광적으로 미쳐있 는 분이었어요. (...중략...) 그 분한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어요. 거 의 강제적으로 매주 등산을 가고 답사를 가고, 그러다가 훈련이 된 거 죠.(참여자 4)	수동적 경험의 축적		

<p>지식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공부한 거에 계속 교직원수를 통해서도 쌓아가고. (...중략...) 여러 문화유산답사를 통해 강의를 듣다보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새로운 게 막 보태지거든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그럼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뒤지면서 거기다 보태는 거죠 계속.(참여자 2)</p>	<p>많은 답사 통한 지식 축적</p>	<p>다양한 경험의 축적</p>	
<p>프레시안에 그런 답사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역사·문화 쪽으로는, 화성학교는 두 번째 할 때 갔고 서울학교는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최연 선생님이 하시는 고을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순천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번에 다녀온 구미 선산 같은 지방으로 다니는 건데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참여자 2)</p>	<p>역사적 장소 방문</p>	<p>많은 역사적 장소 방문</p>	
<p>‘역사기행’이라는 1박 2일짜리 모임은 일 년에 봄·가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몇 번 갔어요. 그 단체 모임에는 회비를 내고 한 세 번 정도 갔어요. 1박 2일에 한 10만 원정도 할까? 제가 해남에 갈 때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십 만 원정도도 안됐던 거 같아요. (참여자 5)</p>	<p>참가비 지불</p>		
<p>저는 강좌도 들어요. 프레시안에서 하는 거. 일주일마다 저녁시간에 듣고 지금은 또 두 개를 듣고 있어요.(참여자 2)</p>	<p>온라인 강좌 수강</p>		
<p>오마이뉴스에 최진기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꼭 듣다가 (...중략...) 최진기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세요. 건축양식이라든가 미술사, 그림 설명 같은 거. 그거 보는 게 책 한 권 읽는 것 같아요. 책 한 두 권 정도 읽어치 하는 것 같아요. 강의 잘 듣는 게.(참여자 3)</p>	<p>온라인 강좌 수강</p>		
<p>일단 프레시안 인문학습원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꼭 뜨거든요. 뭐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이걸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하면서 관심이 가는 거죠. (...중략...) 프레시안은 강좌 개설한지가 4년인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고, 그전에도 한겨레 문화센터 같은 언론사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또는 제가 전교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전교조 쪽에서도 그런 강좌들 하거든요.(참여자 2)</p>	<p>노력·시간 투자</p>		
<p>화성학교 오려고 뭐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미리 메일 보내준 거. 그거는 한 번 읽어봤어요. 되게 짧으니까.(참여자 1)</p>	<p>노력·시간 투자</p>		
<p>문화유산 관련 책은 뭐 여행안내 책이 있죠. 제가 짝 모아놓은 유홍준 교수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있잖아요. 그 책은 저희 동아리에서 회비로 구입했고, 또 관련 역사기행서, 역사책도 기본이잖아요 거의. 우리 사무실 도서관에 가면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고.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전국시리즈 했잖아요. 80년대 초인가. 그런 것도 좋은 거 많더라구요. 이제 답사회 운영할 때는 그런 책을 찾아보기도 했죠. (...중략...) 조금씩 이제 좀 꼭 필요한 책만 동호회 회비를 들어서 꼭 필요한 책만 사고 그 외에는 빌려보거나 했죠.(참여자 5)</p>	<p>서적 구매</p>		
<p>서적 구매는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있으면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찾아보기도 하고. (...중략...) 인터넷과 서적·문헌 자료를 비교하면 한 6대4나 7대3? 인터넷 자료가 훨씬 많지. 또 시각 자료가 풍부하니까 그것도 보고. 그리고 내가 좀 깊이 관심 있는 (학술적인) 부분들은 문헌자료가 많지.(참여자 8)</p>	<p>정보검색 장비 (인터넷·서적)</p>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일컫는다. 매개요인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에서 취해진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작용을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송영민, 2010b:167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심현상인 ‘삶의 중심부분으로서 문화관광’을 위한 중재적 조건은 ‘문화관광경험의 성과’로 다음 <표 4-5>와 같이 분석되었다. 문화관광 참여자들은 삶의 중요부분인 문화관광 활동을 통해 ‘높은 지식수준’, ‘신체적 기술의 축적’, ‘사회적 기술의 축적’을 달성한다. 특히 ‘사회적 기술의 축적’은 문화관광객이 개인적 즉, 내적인 관심사에서 문화관광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영역을 동호회 활동 등 외부로 넓혀 나가는데 중요한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축코딩 결과 : 중재적 조건

인터뷰 내용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친구들 중에 같이 가기도 하죠. 하는데 나처럼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참여자 2)	지적 자신감		
자꾸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서 일본, 유럽처럼 우리도 가면 갈수록 문화·역사 탐방 수요가 높아질 거예요. 많아지면 그런 쪽에, 좀 더 세밀한 접근들. 어떻게 하면 많이 홍보해내고 그리고 이런 탐방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여행이 아니라 테마를 갖고 여행도 가는 등 삶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해갈 수 있잖아요.(참여자 2)	분야 전망해볼 수 있는 지식 수준	높은 지식 수준	
저희는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래 갖고. 체력은 좋아요. 사실 체력이 좋아야 놀잖아요.(참여자 1)	체력이 좋음	신체적 기술의 축적	문화관광 경험의 성과
답사 가면 거의 뭐 지치지 않고 잘 쫓아다니죠. 난 항상 그렇게 가. 뒤에 안쳐져요. 항상 강사 옆에 붙어 다니면서 꼼꼼하게 계속 질문하고. 자꾸 해요.(참여자 2)			
농진청에 유봉학 교수님이 몇 번 왔어요. 화성 알림이나 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거나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분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봉학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도 두 번이나 전직원인지 어쨌든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강연을 했어요. 한 두 번했고. 김준혁 교수도 몇 번 왔었구요.(참여자 5)	인맥 표현	사회적 기술의 축적	
제가 답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유홍준 교수가 수원 경기서적에 왔어요. (...중략...) 저도 답사회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유홍준 교수가 자기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가 있으니 그때 참여를 하시오 했는데, 직접 참여는 안 해봤어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답사모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제가 참여는 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답사모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조언을 받았죠.(참여자 5)			
사실 문화유산 쪽 분들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인연 좀 알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같이 공부 좀 하려고.(참여자 3)	지적인맥 추구		

## 5)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어떤 문제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거나 일상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0; 송영민, 2010b:16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은 ‘친구·가족과의 관계도모’, ‘동호회 활동을 통한 관심사 공유’, ‘책자정기구독’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문화관광경험의 외부확대’로 다음 <표 4-6>과 같이 명명되었다. 즉,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 활동에 대한 수준이 심화될수록 개인적이고 내적인 관심사 수준에 머물렀던 활동의 범위를 동호회 등 외부의 활동으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표 4-6〉 축코딩 결과 : 작용·상호작용

인터뷰 내용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남편도 원래 문화유산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저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화성답사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취미가 맞으니깐. (참여자 1)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여행가기도 하죠. 작년 봄에 우리 시골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올라왔어요. 데려와서 구경시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설명도 해줬더니 뭐 좋아하죠 친구들은.(참여자 5)	친구 관심 분야 같음		
저번에 그리스 한 번 갔을 때는 아는 형님하고 갔는데 그 양반도 건축 양식을 공부하고 신화도 공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아는 것을 공유했죠.(참여자 3)		친구·가족과의 관계 도모	
남편과 문화유산 보러 자주 다니니까 사이가 좋아졌죠. 연인사이에 친해지는 건 취미를 공유하는 게 최고예요. 같이 있는 시간도 늘뿐더러 같이 있는 시간동안 둘이 끊임없이 할거리를 계속 찾는 게 좀 피곤도 한데 재밌어요.(참여자 1)	답사 통해 관계가 돈독해짐		
저는 문화유산 보러 친구들하고 별로 안 갔던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많이 가고, 아니면 혼자도 많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신랑이랑.(참여자 1)	가족과 함께 함		문화관광 경험의 외부 확대
제가 유산답사모임은 이제 94년도에 원예연구소에 있을 때에 원예연구소 내에서 만들었어요. 답사모임을 했는데 그걸 5년정도 했어요.(참여자 5)	다수·장기간 동호회 활동	동호회 활동을 통한 관심사 공유	
지금도 저는 이제 답사모임이 되면 하고 싶은데.(참여자 5)	동호회 욕구		
만약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 모을 수 있으면, 답사회모임을 하면 좋죠. 여건이 되면은 하고 싶죠. 앞으로도.(참여자 5)	공통취미 공유 욕구		
세계문화유산관리위원회인가 이코머스(ICOMOS)인가를 정기적으로 보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오는 잡지, 그 다음에 수원에서 문화 관련 저널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나와요. 그리고 문화컨텐츠위원회 사이트, 국내외 삼성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KDI 이런 국립이나 민간학술단체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문화관광 관련 새로운 이슈나 주제들이 나오면 그걸 이메일로 알려줘요. (...중략...) 그런 정보는 주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소개하기위해서 봐요. 관광관련해서는 WTO하고 APEC에 보면 관광분과가 있어요. 그쪽 자료를 주로 보고 다운반고, 학위논문을 정기적으로 좀 살펴봐요.(참여자 8)	문화관광 관련 국내외 저널·논문 및 온라인 사이트 참고	책자 정기 구독	

##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Strauss & Corbin, 1990; 송영민, 2010b:170에서 재인용). 중심현상에 따라 나타난 것을 결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결과는 중심현상인 ‘삶의 중심부분으로서 문화관광’을 위해 여러 가지 작용·상호작용을 거쳐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말한다.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결과는 ‘자기표현 수단으로서 문화관광’으로 명명되었으며, ‘차별화 욕구’, ‘고급화 욕구’의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차별화 욕구는 참여자 본인이 남과 다름, 구별됨을 의미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급화는 양질의 것을 추구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문화관광객은 문화관광을 삶의 중요부분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화관광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 대한 축코딩 결과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축코딩 결과 : 결과

인터뷰 내용	핵심 개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사실 많이 다니고 싶어요. 혼자 다니기는 좀 그렇고 잘 아는 분하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낭비, 돈낭비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김준혁 선생님 같이 문화유산에 대해 지식이 많으신 분과 좀 인연이 돼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참여자 3)	인맥의 차별화 (남과 다른대접 원함)	차별화 욕구	자기표현 수단으로서 문화관광
사람들은 나랑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동을 느끼거든.(참여자 7)	남과 다름 추구		
이제는, 어떤 매니아들은 남이 가지 않은 델 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도 있는 거고.(참여자 7)	체험의 차별화 원함		
사람들 스스로가 체험거리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자꾸 애기하고 싶어 하는 특별한 뭐를 만들어야 돼. (...중략...)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저거 언제 끝날까 지겨워라 하고 듣는 것보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참여자 7)	복적 거림 꺼림		
우리는 사람 너무 많은 데는 중간에 돌아와요. 우리는 굳이 악착같이 안 살아요. 놀려고 하는 것인데 뭐 하러 이러냐 이러면서. 사람 많을 땐 너무 가기 싫어요. 정말 그런 거 있어요. 어디 가고 싶다가도, 사람 많은 거에 몇 번 치이니 싫더라고요. 우리도 축제라고 가끔 가봤는데, 축제 같은데 가려면 너무 열심히 살아야 돼요.(참여자 1)			

<p>내가 인문학습원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남편이랑, “인문학교 프로그램,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다.”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가격을 낮추면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레시안 인문학교 내에서만 메일 발송하고, 인문스쿨에만 알려지는 거잖아요. (...중략...) 불특정다수에게 짝 하는게 아니라 동호회 안에만 정보가 공유가 돼서 여기만 신청서를 받는 거잖아요.(참여자 1)</p>	<p>소수 정예 강의 선호</p>	<p>차별화 욕구</p>	
<p>화성학교답사 끝나고 뒤풀이에 참여했을 때 다들 후기가 재밌었는데요. 그날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답사에 일단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 심화로 얘기해다오. 기본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다 심화는 아니잖아요.(참여자 6)</p>	<p>심화 수준 강의 선호</p>		
<p>누가 인솔자가 될지는 사실 복불복이잖아요. 이번 답사 같은 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지. 이번 답사처럼 교수님이 와서 설명해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이런 답사프로그램은 교수님도 괜찮은데 교수님 밑에 공부하는 제자 정도도 이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인 투어 인솔자나 문화재 도슨트보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보다 훨씬 공부했던 사람이니깐, 더 전문적이지 않겠어요? 그 정도 수준만 되어도 훨씬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중략...) 사실 궁이나 안동하회마을의 해설사분들은 자원봉사자인 경우도 있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만담하다가 끝나기도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죠.(참여자 1)</p>	<p>전문 인솔자 선호</p>	<p>자기표현 수단으로서 문화 관광</p>	
<p>답사참여자분들이 끝나고 하시는 얘기들이 ‘프로그램을 잘라서 운영하면 좋겠다,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계속 오고 싶은데 코스가 같으니 다른 분들도 함께 오고 싶어했는데 전번에 다녀온 코스인데 왜 또 가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코스가 같아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경기도로 지역을 넓히는 게 좋겠다, 서울학교 같은 경우 20강을 하는데, 화성학교는 지금 한 강으로 끝내지 않냐, 프로그램 길이를 잘라서 테마별로 바꾸는 건 어때냐.’라고 역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참여자 6)</p>		<p>고급화 욕구</p>	
<p>비용은 아깝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궁투어를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난 돈내겠어요 진짜. 나는 수원사람이 아니라 수원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는데 이번 답사 가서 내가 보고 싶던 거 보고, 또 설명도 괜찮아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중략...) 돈은 사실 거기 오신 분들 다 나이도 좀 있고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사실 3만 원, 6만 원, 2만 원 그게 비싸다 이런 거보다는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돈 대비 퀄리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중략...) 돈을 좀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거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된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저도 이번 답사같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 갖고 씨칭 많이 하는데 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p>	<p>비용보다 질 선호</p>		

<p>이번 답사에 굉장히 만족해서 경주 같은데도 그런 식으로 가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들을 게 많은 곳을 여기저기 슬쩍 둘러보고 가는 식이 아니고 되게 천천히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어요. (...중략...)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천천히 늦게 보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가면 여기저기 정신없이 보고 다니는게 너무 부담되고 뒤에서 같이 온 남편을 놓쳐서 찾고 이러니깐. 이번 답사처럼 천천히 보니깐 너무 좋더라고요. 여유 있게. (...중략...)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 듣고 가는 거는 별로 없기도 했고 프로그램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렇다고 관광버스에서 관광안내원이 하는 좀 그렇잖아요. (...중략...)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게 난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막 빨리 여기로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보시고, 40분까지 오시고”. 이게 너무 조급증이 나요. 난 여기서 앉아서 더 멍 때리고 싶은데, 너무 막 몇 시까지고 이런 게 부담스러워 갖고. (참여자 1)</p>	<p>양보다 질 선호</p>	<p>고급화 욕구</p>	<p>자기표현 수단으로서 문화 관광</p>
--	-----------------	---------------	-------------------------

축코딩을 통해 분석된 범주들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의 흐름에 따라 <그림 4-2>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축코딩 분석을 통하여 기존 전문화 연구에서 이루어지던 전문화 구성요소의 개별적인 이해의 틀에서 벗어나, 요소 간 발전단계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림 4-2>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 전문화 과정

### 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축코딩 과정에서 발견된 범주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가정이나 이론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즉, 개방코딩과 축코딩에서 발견된 범주들로부터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핵심범주를 통합하여 이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핵심범주는 본 연구의 과제인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경험의 특성을 나타내어 통합적으로 설명하도록 표현하였으며, 선택코딩의 과정을 거쳐 연구주제에 맞는 스토리라인을 형성한다.

#### 1) 핵심범주를 통한 이론의 구성: 문화관광객 ‘전문화’

본 연구의 코딩 과정을 거쳐 범주 간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개념의 속성과 차원이 통합되면서 ‘전문화’가 핵심범주임을 발견하였다. 즉, ‘삶의 중심부분으로서 문화관광’이라는 중심현상은 문화관광객이 점차 차별화와 고급화를 통해 전문가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문화의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범주 ‘전문화’는 패러다임 모형으로 나타난 범주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스토리라인

문화관광객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즐거움에서 문화관광을 시작하여, 문화관광을 삶의 중심부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투자(경험, 장소, 비용·시간·노력)하거나 또는 투자하면서 삶의 중심부분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신체적·사회적)이 축적되고 발전되어 친구, 동호회 활동, 책자 정기구독 등 개인적인 활동보다 외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며,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전문화 구성 개념 내의 발전과정의 존재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 제5장

## 연구결과 요약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제3절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제5장 연구결과 요약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 1. 전문화 개념의 적용 가능성 확인

본 연구는 ‘화성학교’ 참가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문헌고찰,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문화관광객의 특성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낚시, 하이킹, 탐조, 사냥 등 해외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집중 연구되었던 전문화 개념이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수원 화성방문객은 문화관광객으로서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국내 문화관광객의 특징적 전문화 개념 도출

본 연구는 해외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국내 문화관광객만의 특징적인 전문화 구성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신체적 기술의 축적’ 및 ‘사회적 기술의 축적’, ‘차별화 욕구’ 및 ‘고급화 욕구’, ‘비용·시간·노력의 투자’와 같이 기존 야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구성개념 및 해외 문화관광객 전문화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국내 문화관광객만의 특징적인 전문화 개념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문화관광객들은 지식 기반 활동인 문화관광을 하면서 초기에는 개인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다가 좀 더 발전된 단계에 도달하면 이 욕구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면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욕구는 지적인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 하는 욕구나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통해 표출된다. 국내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기술의 축적’ 즉 인맥(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의 발견은 지식 기반 활동인 문화관광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존 해외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위주로 연구되어 왔던 전문화 구성개념에 새로운 구성개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점 보완

#### 1) ‘시간·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구성개념 표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전문화의 행동적 접근이 회수 등 양적인 측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시간·노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구성개념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

#### 2) ‘차별화·고급화 욕구’ 개념의 도출

본 연구는 ‘차별화 욕구’, ‘고급화 욕구’의 개념을 도출하고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 전문화 과정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표현 수단으로서 문화관광’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자가 시간 경과에 따라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발전하면서 최초에는 양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점차 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전문화 과정을 설명하는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전문화 구성개념 간 발전과정의 가능성 확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문화관광객의 문화관광 전문화 과정모형 도출함으로써 ‘정서적→행동적→인지적→정서적 접근’의 전문화 구성개념 간 발전과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문화관광객은 관심, 즐거움 같은 매력 요인에서 문화관광을 시작하여 삶의

중요부분으로 여기게 되고 점점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차별화, 고급화를 통해 표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에 전문화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만의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 4)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으로 인한 전문화 연구의 한계 보완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인 결과치의 평균화로 인해 표현되기 어려웠던 전문화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매니아’ 집단의 결과치가 표현 가능하였다.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1. 연구의 의의

#### 1) 국내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분석 관점 제시

본 연구는 기존에 국내에서 관련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분야에만 적용되어왔던 전문화의 개념을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 접목시켜 이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전문화에서 나타나기 어려웠던 ‘인맥’, ‘시간·노력의 투자’, ‘차별화 및 고급화’와 같은 문화관광분야만의 전문화 개념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 및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분석 관점 제시하였으며, 국내 문화관광객 전문화 측정 요인 및 척도 개발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2) 전문화 구성개념에 대한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점 보완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에 양적 연구로는 얻기 어려웠던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시간·노력’과 같은 비물 질적인 개념의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사회적 기술의 축적’ 등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도출된 새로운 구성개념의 확인이 가능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먼저,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평균화하여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문화 개념과 같은 ‘소수의 진짜 전문가’들을 결과에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사용함으로써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진짜 전문가 과정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문화가 초보에서 상급자까지의 연속체의 개념이라는 점에

서 과정·시간개념이 추가될 때야 나타날 수 있었던 세부요소들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보 단계의 문화관광객에게 문화관광은 개인 수준의 관심사이자 취미활동에 그치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점차 개인의 단순 관심사를 벗어나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들은 외부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전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결과이다.

둘째, 행동적 개념의 경우도 기존에는 양적인 기준(횟수 등)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되어 나타난 노력·시간의 투자와 같은 개념은 포함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강좌수강의 경우 문화관광이 지식 중심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화관광 전문화 구성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 지역 애착심의 경우도 기존 전문화는 장소적 세팅(setting)에 대한 경험을 횟수로 측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측정이 부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애착심을 형성하는 과정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셋째, ‘차별화·고급화의 욕구’ 개념의 도출을 통해 문화관광객은 개수보다 질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화관광객은 단순히 많은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한 곳을 보아도 오랜 시간의미를 찾아가며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지식 중심의 활동인 문화관광의 특성상, 문화관광객들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욕구를 갖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맥을 선호함을 확인하고 전문화의 새로운 개념으로 추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전문화 구성개념에 대한 기존 양적 연구의 한계점 보완하고, 전문화 측정척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수원 문화관광객의 차별화 및 고급화 추세에 맞는 시사점 제공

본 연구는 수원화성 방문객의 전문화 분석을 통해 문화관광객으로서 이들의 전문화 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별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수원 문화관광객의 만족도 제고 등 효율적인 문화관광객 관리를 위한 기반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2. 연구의 한계점

### 1) 표본의 대표성 확보의 한계

본 연구는 ‘화성학교 참여자 및 수원화성 문화관광답사 유경험자’에 국한된 표본의 한계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타 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타 관광지의 문화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 전문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에 전문화되어 있는 협의의 문화관광객 개념이 아닌 일반 문화관광객 모두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서 일반 문화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문화관광객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수원 문화관광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문화관광 전문화 측정 지표의 전문성 확보 부족

국내 문화관광 분야에 전문화 개념 적용을 시도한 연구로서 전문가 검증과정을 통해 연구결과로 도출된 문화관광 전문화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나 부족하였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를 통해 연구결과로 도출된 문화관광 전문화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3) 전문화 구성개념의 명확한 구분 부족

본 연구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전문화 구성 개념에 맞춰 구분하도록 노력하였지만, 전문화 분야에서도 개념 구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과정 중에도 개념간의 혼란, 혼재로 곤란한 경우가 많았으며 또 구성개념 간 발전과정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먼저 전문화 구성 개념의 혼재로 인해 구분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는 구성항목들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교집합적 특성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잡지구독의 경우 정서적 요소의 ‘삶의 요성’에 속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잡지를 구독하는 행위로 인한 지식은 인지적 요소에 속하기도 하며 지식의 축적은 행동적 요소에 속하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범주를 구분하는데 기준을 어느 쪽에 둘 것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측정척도의 재구성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경우로 본 연구에서 문화관광객의 ‘기술’로 제시한 인맥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인맥은 사회적 스킬이라는 측면에서 인지적 측면에 속하기도 하지만, 인맥을 쌓고 이를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과시욕이라고 볼 때 정서적 측면의 자기표현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인맥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객들이 답사 후 뒷풀이에 참여하여 서로 친분을 쌓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서적 요소의 성격도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맥은 정보출처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맥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점에서 ‘삶의 중심성’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한다.

## 제3절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1. 전문화된 문화관광객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필요

#### 1) 심화수준의 프로그램 제공

본 연구를 통해 문화관광은 활동 특성상 ‘지식’ 중심 활동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객은 일반관광객보다 개인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을뿐더러, 기본 지식수준 자체도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문화관광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도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며, 지적 욕구가 높은 직업군을 가진 고학력의 50-60대가 주를 이루었다. 때문에 문화관광객은 일반관광객보다 심화된 수준의 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객들은 문화관광을 통해 기존에 TV나 책에서만 보던 개인의 지식과 사실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단순 관광보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문화관광에 참여하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문화관광객이 문화관광에 대한 즐거움을 지식과의 연관선상에서 찾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일반관광객에 비해 높은 문화관광객의 지식 욕구 및 기본 지식 수준의 특성과 지식 축적으로 인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특성을 반영한 심화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연령별·수준별 프로그램 제공

본 연구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문화관광객은 대부분

50-60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문화관광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30-40대, 20대의 참여 증진을 위한 연령별·수준별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문화관광객으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증대가 필요한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다양한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재방문 유도

본 연구의 결과, 문화관광객은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한 곳을 봐도 오랜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관심은 지역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애착심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지역 애착심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sup>4)</sup>.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선호하는 문화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학습 프로그램의 코스를 테마별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원 화성행궁을 둘러보더라도 역사학적 관점, 건축사적 테마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상이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 4) 소수정예 강의 시스템 구축

문화관광객은 복적거림을 꺼려하고 비용에 대한 고려 또는 단순히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는 양질의 문화유산관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관광객은 문화관광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 노력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비용에 대해서는 양질의 문화관광경험을 위해 아끼지 않는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문화관광객들

---

4) 장호찬(2010), 관광지의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장소애착 형성과 관광객으로서의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3):29-57.

은 소수정예 강의, 복적거림 꺼림 등의 차별화와, 비용보다 질, 양보다 질 등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끼리의 폐쇄성의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차별화, 고급화 등 양질인 문화관광경험을 선호하는 문화관광객의 소비패턴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소수정예 강의 시스템을 구축·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문화관광동호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이 문화관광객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개인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외부 즉, 사회에까지 그 범위를 뻗어나가고 있었다. 문화관광객은 동호회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그 안에서 회원들과 함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동질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관광객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공유 선호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동호회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국내 문화관광객의 전문화에 대한 연구 필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첫째, 문화관광객의 질적 및 양적 성장에 대비하여 문화관광객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전문화 분야에서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전문화 개념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화 개념을 문화관광객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동호회 활동’, ‘인맥’ 등 문화관광객의 사회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개념과 ‘차별화 및 고급화의 욕구’의 개념은 전문화 분야에서도, 문화관광객의 전문화 적용 분석에서도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수원화성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일반 문화관광객에 대한

일반 문화관광객에 대한 전문화 적용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의 한계점 즉, 조사대상자가 수원화성을 방문한 문화유산 학습프로그램 또는 답사프로그램 참여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관광에 전문화되어 있는 협의의 문화관광객 개념이 아닌 일반 문화관광객 모두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서 일반 문화관광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수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문화관광객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문화관광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단행본

- 김영석(2000), 사회조사방법론, 나남출판.
- 서태양(1999), 문화관광론, 대왕사.
- Babbie, E.(2002), 사회조사방법론(9판), 고성호 외 9명 공역, 그린.
- Glesne, C.(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안혜준 역, 아카데미프레스.
- Little, R. B.(1976), Specialization and the Varieties of Environmental Experience: Empirical Studies within the Personality Paradigm, In Experiencing the Environment, Plenum Press.
- Manning, E. R.(2011),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Search and Research for Satisfaction(3rd ed),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 Mays, N., & Pope, C.(1996), Quality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in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Care, Blackwell Publishing.
- Stebbins, R. A.(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theory(2nd ed). SAGE Publications, Inc.
- Strauss, A. & J. Corbin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III,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3rd. ed.). SAGE Publications, Inc.
- Urry, J.(1990), The Tourism Gaze: Leisure and Travel in Comtemporary Society, Sage.
- Williams, D. R.(1980), Relationship to Place as a Determinant of

Outdoor Recreation Preferences, Unpublished M.S. Thesis,  
Utah State Universtiy.

## ■ 학술지/학위논문

- 강민애, 류시영, 엄서호(2011), U-관광서비스가 관광지 서비스품질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문화유산관광지의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2) : 229-247.
- 길기연, 최일선, 김가운(2014), F1 경기 관람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여가몰입과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2) : 319-336.
- 김소라(2010), 문화유산관광지 게임형 U-관광서비스의 체험특성에 관한 연구-일반체험활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은, 송운강(2014), 비제도권 관광자의 특성: 근거이론을 통한 한국인의 관광경험, 관광레저연구, 26(2) : 423-442.
- 김현정, 김남조(2012),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세분화 및 주행환경 선호도 분석, 관광학연구, 36(6) : 253-274.
- 변찬복(2012), 해외배낭여행객의 관광경험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7(2) : 239-262.
- 서광봉, 이철원, 조남홍(2012), 기혼여성 라인댄스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1(3) : 45-55.
- 서용석, 김용근(2007),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로서 수영마니아의 축제체험, 관광연구농촌, 19(1) : 141-155.
- 송강영(2012), 자전거 라이더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제품구매 결정요인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 413-426.
- 송영민(2010a), 근거이론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객의 경험분석, 관광학연구, 34(1) : 155-177.

- 송영민(2010b),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제약과 축진의 의미 분석 - 낚시 채널(F-TV) 전문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3) : 237-260.
- 엄서호, 윤자연, 김재원(2012), 게임형 스마트폰 관광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U-관광서비스의 체험성, 만족 및 태도변화의 관계 : 수원 화성박물관 U-SEUM 개발과 시범운용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6(9) : 295-313.
- 오정학, 윤유식(2010a), 문화관광선택속성이 문화관광객 관광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문화관광 관여도 수준에 따른 집단 비교, 관광·레저연구, 22(4) : 81-100.
- 오정학, 윤유식(2010b), 문화관광객 유형분류에 의한 세분시장 분석-관광형태와 선호관광지를 고려한 이단계 군집분석의 적용-, 관광학연구, 34(8) : 167-189.
- 오정학, 허상현(2006),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관광 행태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1(2) : 141-154.
- 이문진, 이연주(2010),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연구동향 : 성과와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 403-413.
- 이문진, 황선환(2012), 스키 참가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별 여가 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147-148.
- 이영란, 김형곤, 오치옥(2013), 캠핑 전문화수준에 따른 제약요인인식과 제약협상전략의 차이, 관광학연구 37(2) : 213-232.
- 이진형(2005),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역동성: 탐조객들에 대한 패널연구, 관광학연구, 29(2) : 235-254.
- 장호찬(2010), 관광지의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장소애착 형성과 관광객으로서의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4(3):29-57.
- 전홍조, 김형훈, 이철원(2013), 테니스동호인의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구조모형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2(1) : 107-119.
- 정명희, 김남조(2006), 모험성 레크리에이션에서의 통제소재와 전문화

- 및 위험지각의 관계 : 스쿠버다이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0(4) : 27-46.
- 채동현, 양일호, 정성안(2011), 초등학교 5,6학년 과학교과서 집필자가 겪은 어려움과 대처방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 회지, 31(8) : 1121-1144.
- 황선환, 김종호(2013), 여가계약 협상 수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분석 : 스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7) : 386-394.
- Bricker, S. K., & Kestetter, L. D.(2000), Level of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Whitewater Recreationists, Leisure Sciences, 22 : 233-257.
- Bryan, H.(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a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 174-187.
- Ditton, R. B., Loomis, D. K., and Choi, S.(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 Re-conceptualization from a social world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 33-51.
- Donnelly, M. P., Vaske, J. J., & Graefe, A. R.(1986), Degree and Rang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toward a Typology of Boating Related Activities, 18(2) : 81-95.
- Goulding, C.(1999), Grounded Theory: Some Reflections on Paradigm, Procedures and Misconceptions, Working paper, No. wp 006199, ISSN No. 1363-6839, University of Wolverhampton.
- Gross, J. M., & Brown, G.(2008), An Empirical Structural Model of Tourists and Places: Progressing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into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6) : 1141-1151.
- Hammitt, W. E., & McDonald, C. D.(1983), Past On-Site Experience

- and its Relationship to Managing River Recreation Resources, 29(2) : 262-266.
- Kerstetter, L. D., Confer, J. J., & Graefe, R. A.(2001), An Exploration of the Specialization Concept within the Context of Heritage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9(3) : 267-274.
- Kuentzel, F. W., & McDonald, D. C.(1992), Differential Effects of Past Experience, Commitment, and Lifestyle Dimensions on River Use Specializ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 269-287.
- Kyle, G., Absher, J., Norman, W., Hammitt, W., & Jodice, L.(2007), A Modified Involvement Scale, *Leisure Studies*, 26(4) : 399-427.
- Lee, J. H., & Scott, D.(2004), Measuring Birding Specializati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eisure Sciences*, 26 : 245-260.
- McFarlane, B. L.(1994), Specialization and Motivations of Birdwatchers, *Wildlife Society Bulletin*, 22(3) : 361-370.
- McFarlane, B. L.(2004),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Site Choice Among Vehicle-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26 : 309-322.
- McIntyre, N., & Pigram, J. J.(1992), Recreation specialization reexamined: The case of vehicle based campers, *Leisure Sciences*, 14 : 3-15.
- Miller, A. C., & Graefe, R. A.(2000), Degree and Range of Specialization Across Related Hunting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2 : 195-204.
- Needham, M. D., Vaske, J. J., Donnelly, M. P., & Manfredi, M. J.(2007), Hunting Special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 Participation in Response to Chronic Wasting Diseas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9(3), 413–437.
- Nuryganti, W.(1996), Heritage Visitors: Heritage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 376–396.
- Pandit, N. R.(1996), The Creation of Theory : A Recent Application of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Qualitative Report*, 2(4), available at: [www.nova.edu/ssss/QR/QR2-4/pandit.html](http://www.nova.edu/ssss/QR/QR2-4/pandit.html).
- Poria, Y., Butler, R., & Airey, D.(2003), The Core of Heritage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 162–178.
- Prentice, R.(1993), Motivation of the Heritage Consumer in the Leisure Market: An Application of the Manning–Hass Demand Hierarchy, *Leisure Science*, 15 : 273–290.
- Richards, G(1996),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European Cultur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 261–283.
- Scott, D., & Shafer, S.(2001), Recreation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3) : 319–343.
- Wellman, J. D., Roggenbuck, J. W., & Smith, A. C.(1982),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Norms of Depreciative Behaviour among Canoeis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 323–340.
- Willey, C., Shaw, S., & Havitz, M.(2000), Men's and Women's Involvement in Sports: An Examination of the Gendered Aspects of Leisure Involvement, *Leisure Sciences*, 22 : 19–31.

## ■ 보고서

김혜인(2013), 문화예술 트렌드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문요약(Abstract)



# The Analysis of Culture Tourism Experience

## – Focused on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

Koreas' interest in traveling to historic sites has increased recently a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spite of this trend, there are few studies have attempted to study the collective effects of the behavior or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visiting cultural sites.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re may be types of tourists who progress from general tourists to specialized cultural travel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ocument which dimensions of culture specialization exist in tourists and whether types of cultural tourists differ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otivation, visitation behavior, and attitude. A ground theory methodology has been used throughout this paper to explain the experience of culture tourists based on their specialization level. In 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eight culture tourists who visited to Suwon Hwaseong frequently.

After interviewing the researcher coded the data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This study followed three steps of coding process. In the open process, concepts were found through conceptualization of blocks which are broken down from raw data. In the axial coding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through a paradigm models.

According to paradigm model, first, it seems plausible to apply recreation specialization theory to culture tourists. Like previous McIntyre and Pigram(1992)'s general model, culture specialization also can be seen to include three basic components – behavioral (i.e., multiple measures of experience, equipment, and setting), cognitive (i.e., knowledge and skill), and psychological (i.e., involvement and centrality).

Second, highly specialized individuals tends to have more knowledge and, as result, more realistic expectations of what they will be encountering during their visit.

Third, knowing that there are segments cultural tourists is useful in programs and developing promotional campaigns targeted to needs of each person, especially those at the lower end of specialization continuum, may b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in cross cultural perspective, to culture tourism studies and marketing strategies of cultural heritages. Results show that the culture tourists tended to progress over the time period in terms of cultural skills and knowledge.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Suwon culture tourists are prominently featured in accumulation of skill (i.e., physical and social skill for culture experience), investment of time and effort, and desires for difference and luxury. Interestingly, compared to American culture tourist, the network within culture tourists is found in Suwon culture tourists. Derived from this study of the cultural tourist experience structure will need to be modified though repetitive experiments and comparison of the model.





**문화관광경험분석 -전문화(Specialization)를 중심으로-**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비매품 ISBN 979-11-85686-16-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443-810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Tel : 031-220-8001 / Fax : 031-220-8000  
www.suwon\_re.kr

비매품

